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12년

HANSUNG
UNIVERSITY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전공

황 현 정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황진수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참여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Research on How Volunteer Service have Effects on
Teenagers' Mental Stability.

2011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전공

황 현 정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황진수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참여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Research on How Volunteer Service have Effects on
Teenagers' Mental Stability.

위 논문을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전공

황 현 정

황현정의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1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국 문 초 록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참여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전공

황 현 정

본 연구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심리적인 안녕감이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아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이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자원봉사 참여자의 봉사내용과 봉사인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원봉사활동참여 정도는 대부분이 월 1회 이상, 자원봉사활동 1회 시간은 1-2시간 정도, 봉사활동기간은 "1년 미만"이 많았으며, 자원봉사종류는 단순노력봉사로 나타났다.

둘째, 현재 봉사활동의 인식은 대부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봉사활동에 대해서는 계속하겠다는 응답자가 많았으며, 봉사활동을 중단하는 이유는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나타났고,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가족의 기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자원봉사활동의 개선에 대한 인식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길 바라는 것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셋째, 자원봉사활동의 결과 인식은 "삶의 보람을 느낀다", "자기 성장의 기회가 된다"와 "본인의 성숙이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많았으

며,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대부분 “주위 사람들의 권위를 따라서”로 나타났다.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 차이는 첫째, 자원봉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은 성별, 학교, 종교, 가족관계, 부모경제력, 건강상태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는 것으로 집단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원봉사 비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은 학교, 부모의 경제력, 가족관계, 건강상태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이 자원봉사활동에 비참여하는 청소년보다 심리적 안녕감 수준은 첫째, 조사대상자의 자원봉사 참여자의 안녕감 수준은 총평균은 5점 척도에서 3.46이며, 세부영역별로는 ‘긍정적 대인관계 수준’, ‘개인적성장’, ‘삶의 목적’, ‘환경에 대한 통제력’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자원봉사 비 참여자의 안녕감 수준은 5점 척도에서 총평균은 3.71이며, 세부영역별로는 ‘긍정적 대인관계’, ‘개인적성장’, ‘삶의 목적’, ‘환경에 대한 통제력’ 순으로 나타났다.

4) 자원봉사활동의 참여자의 봉사관련 특성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은 “자원봉사 기간”, “자원봉사 종류”, “자원봉사 만족”, “자원봉사 지속여부”, “가족의 기대”에서는 집단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자원봉사 특성에 관련하여 통계학적으로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미로 나타났다.

5)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심리적 안녕감의 집단간의 차이는 첫째, 자원봉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안녕감은 성별, 학교, 종교, 가족관계, 부모경제력, 건강상태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는 것으로 집단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자원봉사 비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은 성별, 종교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집단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관계, 건강상태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심리적 안녕감의 세부적인영역별 차이는 첫째, 통계학적으로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 ‘성별’, ‘학교’, ‘종교’, ‘가족관계’, ‘부모의 경제력’, ‘건강상태’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의 세부영역별 차이가 있다. 둘째, 통계학적으로 자원봉사 비참여자의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미로 나타난 ‘학교’, ‘가족관계’, ‘부모의 경제력’, ‘건강상태’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의 세부영역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연구의 결과에 의한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이 봉사의 가치에 의한 봉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나타낸 점이다.

둘째, 청소년들의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종류를 다양하게 개발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기하였다는 점이다.

셋째,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사회환경 요인은 ‘가족관계’와 ‘건강’임을 나타냈다는 점이다.

넷째, 자원봉사 참여자는 심리적 안녕감의 세부영역 즉 자율성, 긍정적 대인관계, 개인적 성장, 삶의 목적, 자아수용, 환경에 대한 통제력에 모두 영향을 미쳐 집단간의 차이를 나타내었으나, 자원봉사 비 참여자는 긍정적 대인관계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삶의 목적, 자아수용, 환경에 대한 통제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내었다는 점이다.

본 연구를 통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의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종류를 다양하게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봉사에 대한 가치에 의해 봉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이 연구되어야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 수준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다양하게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주요어】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참여, 자원봉사활동비참여,
심리적 안녕감,

목 차

I. 서론	1
1. 연구목적	1
2. 연구방법 및 범위	3
1) 연구방법	3
2) 연구범위	4
II. 이론적 배경	5
1. 자원봉사활동의 이론	5
1) 자원봉사활동의 개념	5
2)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관점 및 특성	7
3)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정책	12
4)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기대효과	14
5) 청소년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17
2.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	20
1) 심리적 안녕감의 개념	20
2) 심리적 안녕감의 차원	21
3)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과 안녕감	26
3. 선행연구 및 연구 분석틀	31
1) 선행연구	32
2) 연구분석틀	38
3) 연구가설	39

III. 조사 연구 및 연구결과	40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40
2. 자원봉사활동 참여자 활동내용	42
3. 자원봉사활동 참여자의 인식	44
4. 자원봉사활동의 결과 인식	47
5. 조사대상자의 안녕감 수준	49
1) 자원봉사활동 참여자의 안녕감 수준	49
2) 자원봉사활동 비 참여자의 안녕감 수준	51
6.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안녕감	53
1) 자원봉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안녕감	54
2) 자원봉사자 비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안녕감	58
7. 자원봉사 관련 특성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	62
IV. 결론	67
1. 연구결과요약	67
2. 연구의 함의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73
【참고문헌】	76
【부 록】	84
ABSTRACT	90

【 표 목 차 】

<표 1>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개인 및 사회의 태도 변화	9
<표 2> 학교별, 학년별 봉사활동 시간	12
<표 3>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추진체계	13
<표 4>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기대효과	16
<표 5> 활동내용별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18
<표 6> 대상 기관별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19
<표 7> 심리적 안녕감의 6가지 차원	25
<표 8> 심리적 안녕감척도 세부문항별 문항번호 및 신뢰도	38
<표 9>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41
<표 10> 자원봉사활동 참여자 활동내용	43
<표 11> 자원봉사활동 참여자의 인식	46
<표 12> 자원봉사활동의 결과 인식	48
<표 13> 자원봉사 참여자의 안녕감 수준	50
<표 14> 자원봉사활동 비참여자의 안녕감 수준	52
<표 15> 자원봉사활동 참여와 비참여자의 심리적 안녕감	54
<표 16> 자원봉사활동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안녕감	55
<표 17> 자원봉사활동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세부영역별 심리적 안녕감 차이	57
<표 18> 자원봉사활동 비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안녕감	59
<표 19> 자원봉사활동 비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세부영역별 심리 적 안녕감 차이	61
<표 20> 자원봉사 관련 특성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 차이	64
<표 21> 자원봉사 관련 특성에 따른 세부영역별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	66
<표 22> 연구가설 결과	68

【 그림 목 차 】

[그림 1] 봉사학습의 개념의 틀	11
[그림 2] 심리적 안녕감과 심리학 이론과의 상관성	22
[그림 3] 연구 모형	38



I. 서 론

1. 연구목적

현대 사회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가고 있으며, 고도의 산업화와 정보화로 사회의 물결이 빠르게 변화되어 가고 있다. 또한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빈부격차, 소외, 정신적인 고독을 느끼며 정서적 안녕감 없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사회현상과는 달리 인간의 삶의 행복에 대한 욕구와 관심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전통적인 확대가족에서 부부중심의 핵가족의 변화로 인해서 가족 간의 공동체 의식, 인성 교육, 도덕교육을 수행하기에는 가족의 기능이 약화되었다. 또한 개인주의가 팽배하게 되었으며 저 출산으로 인한 자녀수의 감소와 인구의 노령화, 이혼과 별거, 기타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한 한 부모가족, 조손 가족 등 가족의 기능과 형태가 다양하게 변하고 있다.

특히 요즘 청소년들은 지식위주의 입시경쟁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삶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갖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현대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물질중심화는 황금만능, 배타의식, 불신풜조 등을 만연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가족이나 학교의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가족이 자녀를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그들에 대한 과잉보호가 늘어나고 있으며, 입시에 대한 과다열풍으로 부모자식 간의 교류 기회가 줄어들면서 청소년들의 정체성 확립이나 사회성 개발에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다(조경진·김은정, 2009 12(2), 81-103).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나 타인들에게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교실 밖의 교육을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들에게 보다 폭넓은 경험을 제공하여 다각적이고 사회복지의 체험적 실천이 필요하다(문영희, 2003, 28(1), 123-144).

청소년기는 바른 가치관과 자아정체성 확립을 이루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시기이다. 사회로부터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받아들이며 익히는 시기이다.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은 청소년들이 주변에

관심을 갖고 지역과 사회의 하나의 구성원으로써, 다양한 학습을 통해 청소년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다양한 삶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인지하고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과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여러 활동과 문제를 통하여 사회 구성원간의 서로의 이해와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개인의 만족감, 가치창조 그리고 사회참여 기회를 갖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입시위주의 교육에 얽매어 자원봉사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체험활동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그들의 인성형성기를 보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청소년들이 건전한 책임의식을 갖춘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을 돕기 위해 자원봉사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청소년들의 자아실현과 비행예방은 물론 사회전체의 공익 증진과 공동체 사회의 재형성에 기여하게 된다(권지나, 2003: 1-2).

특히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은 어른 사회를 받아들이면서 자아를 형성해 가는 청소년들이 누구나 자신의 자아를 발견하고 자신의 삶의 의미와 보람을 스스로 찾으려는 내면적 욕구를 실현시키면서 상부상조정신, 공동체 의식, 합리적사고 등을 키울 수 있는 활동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통해 기복적인 욕구 충족과 건전한 인격형성 및 자기존재의 의미와 자기존중 정신을 깨닫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식하면서 타인과 협력하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류기형 · 강종수, 2005, 14: 151-174).

위에서처럼 여러 요인으로 청소년 자원봉사의 필요성과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으로 얻을 수 있는 여러 장점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조사연구를 통해 본 연구자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심리적인 안녕감이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아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과 비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심리적 안녕감의 수준을 비교 분석해 보고,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심리적 안녕감을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자원봉사 관련 특성에 따라 분석해 보고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키는 요인을 찾아 보고자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1)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조사연구를 병행 실시하였다. 문헌 연구의 이론적인 배경으로 자원봉사활동과 심리적 안녕감의 개념을 정리하였고, 자원봉사활동으로는 자원봉사활동의 개념,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관점 및 정책, 기대효과, 프로그램내용을 정리하였고, 심리적 안녕감은 심리적 안녕감의 개념, 심리적 안녕감의 차원, 청소년의 특성과 청소년의 심리적 특징을 조작적으로 정의하여 국내외 문헌과 연구논문, 각종기관 발행의 기초로 하여 이론을 고찰하였다. 광명시의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과 중학생들에게 자원봉사활동의 참여와 비참여로 나누어 설문지를 작성하여 분석하였다. 청소년들의 자원봉사활동의 참여와 비 참여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에 대해 알아보고 분석하여 여러 이론을 다시 한 번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설문조사로는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청소년과 자원봉사활동을 하지 않는 청소년으로 구분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이 방법은 현지 조사원의 주관적 판단이나 현지의 상황적 조건이 개입할 여지가 있으므로 대표성이라는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지만 조사의 편의나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사회과학의 조사연구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설문지를 분석하기 위해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12.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으로는 먼저 각 설문문항에 대한 기초 분석을 위한 빈도분석(frequency)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자원봉사활동의 참여와 비 참여, 참여수준, 참여 동기 및 만족도에 따른 각 설문문항에 대한 차이유무를 분석하기 위하여 티 검증(t-test)과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하였다.

2) 연구범위

조사의 결과 값이 보다 객관성이 있기 위해서 청소년들의 연령을 보다 폭넓게 조사해야 했으나 전 연령을 조사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광명시의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과 중학교 학생들을 250명을 연구 범위로 정하여 설문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자원봉사활동이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청소년들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해서도 조사 분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초등학교 고학년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조사도구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자원봉사활동의 이론

1) 자원봉사활동의 개념

자원봉사활동은 개인의 자발적인 선의에 의해 타인이나 이웃을 돕는 인간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되어 진다고 볼 수 있다. 자원봉사자, 볼런티어(volunteer)란 라틴어의 voluntas(자유의지)라는 단어에서 유래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라틴어의 volo(의지)에서 voluntas라는 말이 생겼으며, 의미는 자발적인 것, 자주적·임의적 자유의지를 의미한다(김범수외, 2002: 23).

자원봉사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1930년 세계 사회사업대회에서이다. 미국사회사업가협회가 발간한 사회사업백과사전(NASW, 1977)에서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개인, 집단 지역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사회문제를 예방, 통제, 혹은 개선하고자 하는 공적, 사적의 여러 기관에서 주어지는 각종 서비스에 보수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개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김익균 외, 2005: 5).

미국의 맨서(G.Manser)와 캐스(R.H.Cass)는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자신이 선택하고 자원봉사 기관을 통하여 활동, 창조, 실험하고 또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 있어서 최대한 자유와 민주적 과정 속에서 독특한 역할을 수행하며, 공익의 어떤 요소를 증진 또는 촉진시키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Manser & Cass, 1971: 11; 강경심, 2006: 5, 재인용)

조휘일(2002: 31)은 사회적 책임감의 태도를 가지고 금전적 이득에 대한 관심 없이, 또한 기본적 의무감으로부터 벗어나서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이뤄지는 활동으로 정의했다. 김영호(2003: 18)는 아무런 대가 없이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리라고 하였으며, 주성수(2005: 21)는 자원봉사 정신에 따르는 자발적 활동뿐 아니라 자원봉사활동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조직과 기관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넓게 이해하고 있다.

자원봉사활동은 대가 없이 자신의 생각으로 주변 사람들을 존중하고 이웃과 함께 라는 생각과 본인의지로 자신이 선택한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개인이나 집단, 지역사회의 문제를 예방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과 자기 스스로 결정해서 남을 위해 또는 내가 사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보수를 바라지 않으면서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자원봉사활동의 개념을 정리하여 청소년 자원봉사의 개념을 정의 하면, 청소년들의 자원봉사활동은 성인의 자원봉사활동의 개념과 약간의 차이는 있다.

한국여성개발원에서는 교육적 차원에서의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을 체험 학습을 통해서 개인적 만족감을 증진 시킬 뿐 아니라 사회참여 기회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기회가 되고,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학습에서 얻은 지식과 기술을 지역사회에 실천함으로써 그 지식과 기술을 보다 실제적인 기술로 만들 수 있는 행동 이라고 정의했다(이청자·백경희 외, 1994: 13).

청소년 백서에서는 청소년봉사활동을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봉사활동 현장에 적용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실천과정에서 새롭게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과정을 반복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학습의 효과를 높이는 데 있으며, 민주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라 정의하였다(문화체육부, 2004: 280).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이란 청소년 스스로 주변사람이나 지역사회 문제를 위하여 일정의 기간 동안 활동하며 그 안에서 보람과 흥미를 느끼고, 자신이 가진 능력이나 재능을 발견하며, 나아가 자신의 자아성취감, 삶의 목표, 친구 관계 등 자신이 살아갈 공동체적 삶을 두루 경험함으로써 심리적 안녕감을 형성하고 배움을 실천해 나가는 일련의 활동이다. 따라서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은 청소년 인격형성과 심리적 안녕감을 높일 수 있는 활동으로 볼 수 있다.

학교교육에서 많이 경험하지 못 하는 사회경험과 대인 관계를 통해 주변을 돌아보고 사회 참여 방법을 찾고 알아가며 본인 스스로 자긍심과 자존감의 획득으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며, 나아가 정서적 심리적

안녕감을 키워 사회적으로 건전한 인격체로 자랄 수 있는 활동이라고 본 연구자는 정의 내리고 싶다.

2)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관점 및 특성

(1)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관점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을 바라보는 입장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류기형·박경일, 1998: 315-317).

첫 번째 관점은 ‘학습’으로서 자원봉사를 바라보는 점이다. 이 관점은 청소년이 봉사활동을 통하여 문제해결의 방법을 스스로 구해 보도록 하며, 지역 사회의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하여 학교에서 배운 이론의 적용과 사회 현실의 경험, 그리고 도덕적 가치의 체험까지 동시에 통합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과정을 배우는 것이 자원봉사활동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을 바라본다면, 청소년 봉사활동은 점수따기식의 봉사활동이 아니라 학업과 연계한 봉사학습이 되어야 하고, 부여된 과제 완수 위주의 봉사활동보다는 청소년의 인성적 발달과 교육적 측면을 중시하여야 하며, 청소년은 사회현실을 무시한 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닌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사회구성원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두 번째 관점은 자원봉사활동의 실시에서 나타나는 ‘활동의 방법’으로서 자원봉사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이는 자원봉사가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교육이 아닌 활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의 주체성, 자발성이 중요시되고, 본인의 봉사활동 경험을 기초로 스스로 봉사활동을 작성하여 평가하며, 나아가 집단 토의나 사례발표 등을 통하여 지식과 경험을 상호 교환한다.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을 바라본다면, 청소년 봉사활동은 수동적. 타율적 봉사에서 주체적. 자발적 봉사활동으로 전개되어야 하고, 보조적인 단순 노력봉사에서 창의력 개발과 기술양성이 가능한 활동으로 이어지며, 청소년을 위해서라는 자세에서 청소년과 함께 한다는 자세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관점은 ‘더불어 살아가는 생활은 인간 상호간의 도움과 협동을 필요로 하며, 구성원들이 상호부조와 연대감을 가지고 개인생활을 전개해 나갈 때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본다면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이란 청소년 스스로가 활동을 통하여 배우며 본인의 잠재력을 기르고 동시에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닌 나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배울 수 있고 주변을 돌아보며 함께 라는 인식을 통하여 공동체적 의식을 갖을 수 있다.. 따라서 이 관점은 생활 주체자인 청소년의 가치 및 행동방식이 스스로 결정하며 적극적인 참여로 이뤄질 때 자발적인 봉사활동이 될 것이다.

나아가 사회 환경이나 조건이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을 쉽게 가능케 할 수 있는 생활구조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관점에 입각하여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을 바라본다면, 청소년 봉사활동은 이기적이며 자기중심적인 생활 활동에서 이타적이며 사회 정의적 생활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사회 및 단체의 부담 또는 짐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상호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동반자적 관계로 인식하며, 주어진 과제나 현 과제의 해결이라는 단기적 봉사활동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공동체사회를 구축한다는 장기적 시각에서 봉사활동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류기형·박경일, 1998, 315-317).

이러한 세 가지 관점과 관련하여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개인 및 사회의 태도 변화를 요약정리하면 다음 <표 1>와 같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실제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아래의 3가지 관점은 각각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보완적이며 통합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권지나, 2003: 22-24).

<표 1>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개인 및 사회의 태도 변화

관점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개인 및 사회의 태도 변화
학습	점수따기식 봉사활동 ⇨ 학업과 연계한 봉사활동(봉사학습) 부여된 과제 완수 위주 ⇨ 청소년의 인성적 발달과 교육적 측면중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사회 구성원
활동	수동적, 타율적 봉사활동 ⇨ 주체적, 자발적 봉사활동 보조적인 단순 노력봉사 ⇨ 창의력 개발과 기술양성 가능한 임무 청소년을 위해서(for)라는 자세 ⇨ 청소년과 함께(with)한다는 자세
생활 구조	이기적이며 자기중심적 생활활동 ⇨ 이타적이며 사회 정의적 생활 활동 사회 및 단체의 부담 또는 짐 ⇨ 상호 협력과 지원을 통한 동반자 관계 단기적 문제해결중심의 봉사활동 ⇨ 장기적 복지공동체 구축을 위한 봉사활동

출처: 류기형·박정일, 1998: 317

(2)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특성

청소년 시기는 성적, 신체적, 심리적으로 급격한 성장으로 인한 발달의 특성을 보인다. 청소년은 역동적이고 창조적이며, 열정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사회발전의 중요한 인적 자원이다. 청소년을 건전하게 성장 교육시키는 것은 청소년 자신, 가정, 지역사회, 국가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아주 중요한 과제이다(김명수, 2008: 205). 청소년기의 자원봉사활동은 순수한 의미의 자원봉사가 아닌 학습, 봉사활동의 체험학습의 연장선상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은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이기 보다는 학교계획에 의하여 교육적으로 지도하는 활동이다(서울특별시 교육청, 2010: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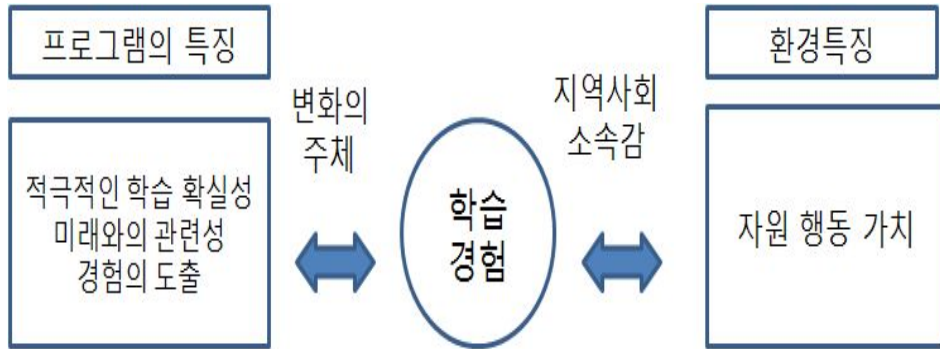
자원봉사활동이 특별활동의 한 영역으로 자리 잡게 됨에 따라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은 학교계획에 의해 계획에서 평가까지 전 과정을 학교가 지도하는 활동이 되었다. 이때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은 학생들의 신체적, 지적, 사회적, 도덕적 발달단계를 감안하여 학급별로 적절한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2010학년도 중·고등학교 학생봉사활동 지도서에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학생들의 본격적인 봉사활동을 실천하기보다는 봉사정신과 태도를 기르는데 중점을 두고, 주로 교내 및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봉사활동을 하도록 한다. 중학교에서는 완전히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하기는 힘들지만 어느 정도의 봉사활동 실천은 가능하다. 따라서 봉사학습의 개념에 입각하여 학교에서 안내, 지도된 활동을 중심으로 실천하도록 하고, 학교 내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공공기관에까지 활동영역을 확대한다. 고등학교에서는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역사회와 다양한 부문으로 활동영역을 확대한다. 특히, 학생들에게 자신이 선택하려는 지로 영역과 관련하여 봉사활동을 실천하도록 지도함으로써 진로선택에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고 적혀 있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10).

둘째, 교육활동으로서의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은 체계적인 커리큘럼의 개발과 그에 따른 활동 수행절차의 수립 등 일련의 과정이 교육적 원리와 방법에 기초를 두고 전개되어야 한다(조경신, 2008; 홍성희, 2010: 12).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은 봉사와 학습의 동시적인 효과를 달성하는데 그 목표가 있으며, 행동에 의한 학습(learning by doing) 혹은 경험에 의한 학습(learning through experience)이라는 교육 가치를 중시하는 경험 교육 철학에 바탕을 두고 있다

Carver는 봉사학습을 경험적 교육(학습)으로 규정하고 개념적 틀을 [그림 1]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그림 1] 봉사학습의 개념의 틀



출처: 김통원 · 김혜란, 2001; 김명수, 2008: 206. 재인용

경험적 교육(학습)의 한 형태인 봉사학습은 학습 환경 안에서 창조되고 개발되는데, 이 학습 환경은 학생의 경험, 프로그램의 특징, 환경의 특징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그 중에서 학생의 경험을 구성하는 것은 능력, 지역사회 소속감, 변화의 주체 세 가지이다. 봉사학습의 기회부여의 목적은 학생들이 더 많은 지역사회 소속감을 갖게 하고, 학생 스스로 더 효과적인 변화의 주체가 되게 하고, 학생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학생의 세 가지 경험은 제공되는 프로그램과 환경의 성격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 프로그램의 성격, 혹은 특징은 다양한 형태의 학습내용, 프로그램과 관련한 학생의 반응, 현재의 경험과 미래의 연계성 정도 그리고 경험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결과들이다. 환경의 특징은 심리적, 물리적 자원들, 자원을 선택하고 사용하는 행동 그리고 행동을 지배하는 가치들을 의미한다.(김통원 · 김혜란, 2001; 김명수, 2008: 206-207. 재인용).

셋째, 학교중심의 봉사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유용한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봉사하는 경험으로부터 학습하는 것을 중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은 봉사와 학습이 상호 분명하게 연결되어야한다(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 2005: 19-22).

3)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정책

자원봉사와 관련된 주요 부처는 행정안전부,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가 있다. 청소년 자원봉사 정책과 관련해서 교육과학기술부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자원봉사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는 초·중·고등학교 자원봉사활동과 대학생 해외봉사활동 및 퇴직교원들의 전문성을 활용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초·중·고등학교의 자원봉사활동은 1996년 5월31일 제정된 학생봉사활동운영지침(교육부 장학자료 제112호)등에 근거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실천중심의 인성 교육 강조, 공동체의식 함양,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적 자질함양, 건전한 가치관 형성 등을 담고 있으며 정규교육과정 중 특별활동의 한 영역으로 설정되어 운영하고 활동실적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을 근거로 시·도교육청은 지역 실정에 알맞은 세부지침을 수립하여 학교에 시달하고 있는데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의한 봉사활동과 학생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으로 구분하여 지도하고 있다 학교별, 학년별 봉사활동 시간은 <표> 2와 같다.

<표 2>학교별, 학년별 봉사활동 시간

학교별	학년별	개인별 봉사활동 권장시간	학교교육 과정에 의한 봉사활동시간
초등학교	1~4학년	연간 7시간 이상	연간 5~7시간 이상
	5~6학년	연간 10시간 이상	
중학교	전 학년	연간 18시간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고등학교	전 학년	연간 20시간 이상	

출처: 교육부 장학자료 제112호 1996; 박종배, 2010: 32. 재인용

대학생 해외봉사활동은 저개발국가에 대한 봉사활동을 통하여 조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봉사정신 함양과 건전한 대학문화의 풍토를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29조에 근거하여 1998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주요내용은 봉사활동 내용은 교육, 의료, 노력봉사, 문화교류 등이며, 봉사활동기간은 방학기간 중 3주 이내 봉사활동 참여 학생에게는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해당 대학의 학칙에 따라 일정 학점을 부여한다.

퇴직교원을 위한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은 퇴직교원들의 전문적 능력을 활용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하게 하려는 것으로 교육과학기술부의 평생교육센터, 광역교육청에 지역평생 교육정보센터, 지역교육청에 평생학습관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추진체계는 <표 3>과 같다.

<표 3>금빛평생교육봉사단 추진체계

교육과학 기술부	평생교육센터	사업지원 및 관리 관리자 연수
광역교육청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26개 기관)	희망자 모집, 교육 자원봉사자DB구축
지역교육청	평생학습관 (203개)	자원봉사자 관리 자원봉사자 쉼터 제공

출처: 박종배, 2010: 33.

평생교육센터는 관리자 연수와 사업 지원기능을 담당하며, 광역교육청의 평생교육정보센터는 자원봉사자 모집 및 DB구축 기능을 수행하고 지역교육청 소속의 학습관을 실제 자원봉사자를 관리하고 수요자와 연계하는 기능을 담당한다(박종배, 2010: 32-33).

(2) 여성 가족부

여성 가족부는 여성 자원 활동센터와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여성자원 활동센터의 법적 근거는 여성발전기본법에 있으며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는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규정에 의해 156개소의 여성 자원 활동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기능은 여성 자원 봉사단협의회, 자원봉사단 및 재정이사회 운영 지원, 자원봉사자 모집, 배치, 자원봉사프로그램 참여자, 여성회관 교육생 및 자원봉사 희망자 등을 모집, 적절한 분야의 자원봉사단에 배치,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운영, 조직육성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1997년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에 근거규정을 두었고, 2003년 청소년활동 진흥법을 제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6년에는 대통령 소속 기구로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였고 2008년 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보호위원회로 개편되어 보건복지부로 흡수되었다가 2010년 가족, 청소년 업무가 여성가족부로 이관되면서 청소년자원봉사센터도 여성가족부에 속하게 되었다. 중앙에 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설치되고 시·도에 16개의 시, 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33조).

청소년 및 부모에 대한 상담, 상담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상담자원봉사자 및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청소년 폭력, 학대 등으로 피해를 당한 청소년의 긴급구조 및 법률·의료지원,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 협력체제 구축·운영 등이다(박종배, 2010: 35).

4)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기대효과

청소년기는 성인이 되기 위한 학습시기로서 사회적 기능을 획득하고, 육체적·심리적·사회적으로 중요한 변화와 성장과정을 겪게 되며, 자아정체감과 도덕성을 형성하면서 한 인간으로서의 행동기준과 가치관을 정립해 나간다(류기형·강종수, 2005: 14: 151-174.).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청소년기의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사회에서 자신의 생산적 가치를 인식하고 좀 더 긍정적인 자아상의 형성에 도움을 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이성은, 2009).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은 지역사회에서의 체험학습을 통하여 개인적 만족감을 증진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참여의 기회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기회가 되며 교과학습을 통한 지식과 기술을 지역사회 수준에서 실천함으로써 그 지식과 기술을 좀 더 실제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특정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과 문제해결능력의 향상, 의사소통기술의 증진, 도덕과 윤리적 가치관단, 사회적 연대감과 책임과 학습, 사회에 대한 이해증진, 다양한 사람과의 접촉을 통한 공동체적 의식함양 등에 매우 효과적이다(류기형·강종수, 2005: 14: 151-174.).

청소년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이유는 다른 연령층의 자원봉사자와 마찬가지로 다양한데, 타인을 돕고자 하는 단순한 의미에서부터 지식습득, 학교에서 필요한 시간 채우기식까지 여러 가지 동기가 있다. 청소년들이 자원봉사활동에 기대하는 목적은 두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권위적이거나 비판적이지 않은 분위기에서 일하는 즐거움을 맛보는 것이며 둘째는 성취감을 얻고자 하는 것인데 이를 통해 의식의 발달은 물론 자율성 및 자긍심의 발달을 얻을 수 있다(한국여성개발원, 1994: 3-7).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사회문제 및 현실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를 하고, 기본적 욕구의 충족 및 보완의 과정으로 미시적으로는 사회복지를 위한 것이지만 거시적으로는 사회적 통합을 이루게 된다(남유정, 2005: 14).

자원봉사활동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신감과 지도력을 향상시켜 주는데 이는 특히 집단 봉사활동과정에서 집단활동을 통하여 자기를 표현할 기회를 가지게 함으로써 자신감을 갖게 되거나 타인들과의 협동과정에서 인간의 심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기 때문이다(이팔환·백남덕,

2004: 157).이러한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효과와 관련하여 Conrad & Hedin은 자원봉사활동 경험을 통해 청소년들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 영역을<표 4>로 제시하고 있다(Conrad & Hedin, 1989: 19-20, 권지나, 2003: 17-18. 재인용).

<표 4>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기대효과

기대효과	내용
개인적인 성장과 발달	자아 존중감, 개인적 유능감, 자아와 도덕발달, 새로운 역할과 관심의 탐색, 새로운 도전의 수용과 위험의 감수, 가치와 심념의 수정과 강화, 책임감의 향상, 자기행동의 결과에 대한 수용
지적 성장과 발달	기본적인학업기술(생각의표현,읽기,계산하기),높은 수준의 사고기술(편견 없는 태도,문제해결,비판적 사고),봉사경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과 기술,경험으로부터 습득한 기술(관찰,질문,지식에 적용), 지식의 습득과 보유에 해한 동기,책이나 강의를 통해서 설명할 수 없지만 꼭 알아야 할 통찰력,판단 및 이해
사회적 성장과 발달	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복지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책임성,정치적 유능성,시민의 참여정신 함양, 자원봉사와 관련된 직업에 대한 지식과 탐색,다양한 배경과 삶의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평가

자료: Conrad & Hedin, 1989: 19-20; 권지나, 2003: 18. 재인용.

5) 청소년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은 결과보다는 건전한 참여 동기의 확립과 참여방법 및 과정에 중점을 두고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얻어질 수 있는 리더쉽과 인간관계 기능을 높여 심리적 안녕감을 얻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과제는 학교의 학습과정과 병행되는 특별활동으로서의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민주주의와 봉사정신을 함양하며 건전한 시민성과 인성을 발달시키는 것이다.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마련될 필요가 있다.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은 활동 내용별로는 <표 5>와 같이 일손 돕기활동, 위문활동, 캠페인활동, 자선구호활동, 환경·시설보전활동, 지도활동, 지역사회개발활동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일손 돕기 활동에는 복지시설, 공공시설, 병원, 농·어촌, 학교 등에서의 일손 돕기 활동이 있으며, 위문활동에는 보육원, 양로원, 장애인, 병약자, 군부대 등에서의 위문활동이 포함된다.

캠페인활동에는 공공질서 확립캠페인, 교통안전캠페인, 학교주변 정화캠페인, 환경보전 캠페인 등이 있으며, 자선구호활동에는 재해구호, 불우이웃 돕기, 헌혈과 골수 기증, 국제협력과 난민구호활동 등이 포함된다.

환경·시설보전활동에는 깨끗한 환경 만들기, 자연보호활동, 문화재 보호활동 등이 있으며, 지도활동에는 동급생지도, 하급생지도, 복지시설 아동지도, 교통안전지도 등이 포함 된다.

그리고 지역사회개발활동에는 지역실태조사, 지역 사회 가꾸기, 지역행사 지원, 지역홍보활동 등이 있다(교육부, 1996: 47-55).

<표 5> 활동내용별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활동영역	주요활동내용
일손 돕기 활동	복지시설일손돕기활동, 공공시설일손돕기활동, 병원 일손돕기활동, 농. 어촌일손돕기활동, 학교내 일손 돕기활동
위문활동	보육원위문, 양로원위문, 장애인위문, 병약자위문, 군부대 위문등
캠페인활동	공공질서 확립캠페인, 교통안전캠페인, 학교주변 정 화캠페인, 환경보전 캠페인 등
자선구호활동	재해구호, 불우이웃 돕기, 국제협력과 난민구호활동
환경. 시설 보전 활동	깨끗한 환경 만들기, 자연보호활동, 문화재 보호
지도활동	동급생지도, 하급생지도, 복지시설 아동지도, 교통 안전지도
지역사회개발 활동	지역실사회조사, 지역 사회 가꾸기, 지역행사회정보 화

출처: 교육부(1996). 『학생봉사 활동의 이론과 실제』. 47.

또한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은 대상자나 기관별로도 구분할 수 있는데 대 상자별로는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이 있으며, 기관별로는 병원, 환경단체, 시민단체, 문화단체, 도서관, 공공기관, 학교 등에서의 자원봉사활동이 있다. 각각의 세부적이 활동 내용을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6>대상 · 기관별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분류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대상별	아 동	*아동시설이나 지역사회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서비스에 직접 참여하여 학습지도, 보조교사, 캠프활동 지도, 레크리에이션 지도 등
	노 인	*홀로 살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하여 맘벗, 외출시 동행, 심부름, 집안정리세탁, 목욕 보조 등 *노인복지시설에 계시는 노인들을 위해 말벗, 산책시 동행, 배식보조, 청소, 세탁, 목욕보조, 경로잔치 보조 등의 노력봉사등
	장애인	*재가 장애인을 위한 가정방문 학습지도, 물리치료보조, 식사, 외출 돕기, 청소 등의 활용 등 *시설 장애인을 위한 학습지도, 낭독녹음, 점자 타이핑, 캠프보조 등
기관별	병원	*방문객 안내, 응급실 보조, 소독 솜 정리나 거즈 접기, 병실방문, 차트정리, 병실 도서대여 등의 활동
	환경단체	*환경 캠페인 참가, 환경감시단 등의 활동
	시민단체	*사무보조, 자료정리, 실태조사 등의 활동보조
	문화단체	*미술관, 박물관, 기념관 등 안내. 사무 보조자로 활동
	도서관	*서가 배열, 도서정리, 도서관 안내, 사무보조 등의 활동
	공공기관	*동회나 구청, 시청, 의회 등에서 사무보조 등의 활동
	학 교	*식목 및 정원 가꾸기, 시설보수, 또래상담, 저학년 학습 등

출처: 홍봉선 · 남이애(2004). 『청소년 복지론』. 184)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자원봉사활동은 대체적으로 방학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원봉사활동의 의미와 가치를 모르고 학교 봉사활동점수를 얻는 데 많이 제한되어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자원봉사활동을 목적 없이 하게 되며, 맡은 일의 책임감과 지속적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좀 더 다양하고 청소년들에게 목적을 갖고 실천하며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자원봉사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

1) 심리적 안녕감의 개념

심리적 안녕감은 사람들이 일상생활 사건을 지각하고 적응하면서 느끼는 정서로써, 외부의 자극과 개인의 반응이 상호작용하는 결과이다. 또한 한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에 기초하여 평가한 전체적인 감정을 일컫는 용어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심리적 안녕감을 개인이 지각한 주관적인 경험에 기초한 행복감 또는 전반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사건에 적응하면서 환경과의 상호작용 결과로 나타나는 총체적이고 지속적인 정서적 평가를 포함하는 것이다(박정수, 2011: 9).

주관적 안녕감의 수준이 높다는 것은 높은 삶의 만족도, 적은 부적 정서 경험, 그리고 많은 정적 정서경험을 하는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차경호, 2004: 322).

심리적 안녕감은 일상생활의 사건에 사람들이 적응하면서 느끼는 정서로서, 개인이 지각하는 주관적인 경험에 기초한 행복감 또는 전체적인 감정을 말하며, 이는 환경에 대한 개인의 반응이나 환경에 대한 개인의 통제나 긍정적인 대인관계 및 개인의 자아 수용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Ryff, 1989; 김종례, 2009: 15-16. 재인용).

일반적으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안녕감이 높으며, 안녕감은 삶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측면을 반영하는 것으로 단순히 부정적인 정서가 없다고 해서 안정의 지표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며, 긍정적인 정서와 부정적인 정서가 서로 독립적으로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신미진, 2011: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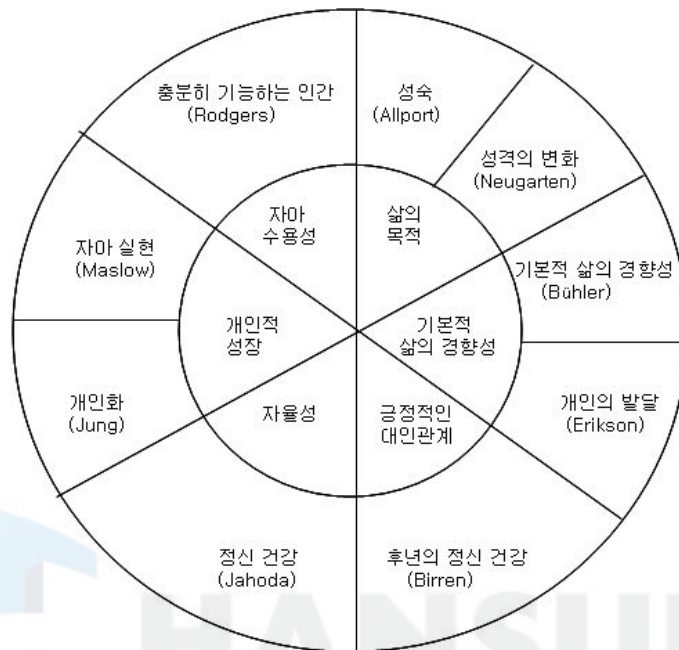
심리적 안녕감은 삶에 대한 전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인 주관적 안녕감과 달리 이론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을 구성한다고 여겨지는 심리적 측면들의 합을 말한다(주현숙, 2006: 13).

이를 종합해보면 심리적 안녕감이란 개인이 지각한 주관적인 경험에 의한 정서적인 반응이며,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와 감정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개인의 삶의 질을 구성하는 심리적인 측면들도 함께 작용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2) 심리적 안녕감의 차원

심리적 안녕감 척도를 개발한 Ryff(1989)는 심리학의 여러 이론들과 심리적 안녕감의 6개의 하위 차원과의 연관성을 기능적인 차원에서 제시하였고, [그림 2]에서와 같이 심리적 안녕감의 6개의 차원은 다수의 심리학 이론과 1개 이상의 상관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들 관계에서 일부의 이론은 서로 겹쳐서 하나의 차원을 이루기도 하였다(김종례, 2009: 16-20. 재인용). 또한 <표 7>에서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그림 2] 심리적 안녕감과 심리학 이론과의 상관성



출처: Ryff, 1989; 김종례(2009).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심리적 안녕감 연구”. 17. 재구성.

(1) 자율성(Autonomy)

자율성이란 그리스어로 ‘스스로에게 법칙을 부여하다’라는 뜻으로 자율적, 자치적, 독립적으로 스스로 통제하는 상태이며 이는 인간의 스스로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목적을 향하여 의도적으로 행동하기 위한 심리적 준비를 말하는 것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위한 행동이나 심리적인 상태의 수준 또는 질로 표현된다.

자아실현은 타율적인 작용과 문화화에 대한 저항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자아실현이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객관적인 시각이 아닌 내부적인 평가, 통제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

으며, 스스로 개인적인 기준에 의해 자기를 평가한다. 그리고 자율성이 강한 사람은 집단적인 두려움, 믿음, 대중 등에 대해 집착하지 않고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이다.

(2) 환경에 대한 통제력(Environmental Mastery)

개인이 심리적 조건에 적합한 환경을 창조, 선택하도록 하는 개인의 정신적 건강을 중시한다. 즉 복잡한 환경들을 조절하고 다루기 위한 능력을 요구하며, 육체적 정신적 활동들을 통하여 창조적으로 변화하는 세계 속으로 나아가기 위한 사람들의 능력을 중요시한다. 또 성공적인 성취를 위해 개인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환경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주어진 환경을 개선하고 변화시켜 자신에게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3) 개인의 성장(Personal Growth)

한 개인의 건강한 심리발달 뿐만 아니라 타인과 관계를 맺고 사회적 맥락 속에서 적절히 기능할 수 있는 능력이 성숙한 인간을 타나내는 심리적 특성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자신을 잘 알고 단점을 극복하며 자신의 잠재력을 키워 성장하고 자신을 발전시키며 지속적인 성장과 새로운 도전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을 의미한다. 자아를 실현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 그리고 사람들의 잠재성을 실현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개인적 성장이다. 그리고 개인의 모든 문제는 경험과 고정된 틀에 의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개발하고 새로운 변화에 대해 도전하여 삶의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해 가면서 성장해 가는 것이다.

(4) 긍정적 대인관계(Positive Relations with others)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아정체감(self-identity)을 형성하게 된

다. 자아정체감이란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점과 관련된 것으로 스스로 형성할 수 없다. 오히려 사람이 인간관계를 맺는 동안에 타인이 나에게 보이는 반응을 알게 되는데 그러한 반응, 즉 피드백(feedback)을 통하여 그들이 나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며 이것이 곧 자아정체감의 밑바탕이 되고, 사람들 상호간의 신뢰, 다정한 마음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랑에 대한 가능성은 정신건강의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나타난다. 이는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며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는 심리적 행복이 개념 속에 포함된다고 한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러므로 대인관계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가 없다. 다른 사람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심리적으로 안녕감을 지니게 될 것이고 삶이 행복하리라 생각된다.

(5) 삶의 목적(Purpose in life)

인간의 생활에서 주된 관심사는 개인의 안녕이며, 어떻게 하면 질 높은 삶을 영위하는가이다. 삶에 목적에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감정과 삶에 대한 의미, 목적이 주어져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믿음은 삶의 목적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지향하며, 의도적으로 삶을 영위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긍정적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은 모든 목적이나 의도, 또는 인생의 의미 있는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한다.

(6) 자아수용(Self Acceptance)

자아수용은 정신건강의 핵심으로 자아실현, 최적의 기능, 낙관적인 작용, 성숙, 긍정적인 태도로 정의되고 있다. 즉 자기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를 새롭게 발견하고 이해한 사람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은 자기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발견하게 된다. 이 경우에 흔히 긍정적

<표 7> 심리적 안녕감의 6가지 차원

차원	점수	정 의
자아 수용	높은 점수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자신에게 좋은 점들은 물론 나쁜 점들을 포함한 자신의 여러 측면들을 인지하고 수용한다. 자신의 과거의 삶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느낀다.
	낮은 점수	자신에 대하여 불만족 한다. 자신의 과거의 삶에 대하여 실망한다. 자신이 갖고 있는 나쁜 점들에 대하여 괴로워한다. 현재의 삶과는 다른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긍정적 대인 관계	높은 점수	타인과 따뜻하고 만족스럽고, 신뢰로운 관계를 갖고 있다. 타인의 행복(welfare)에 관심이 있다. 강한예정, 친밀감, 그리고 공감을 느낄 수 있다. 대인관계란 주고받는 것임을 이해한다.
	낮은 점수	타인과 친밀하고 신뢰로운 관계를 거의 갖고 있지 않다. 타인에 대하여 따뜻하거나 개방적이지 않고 타인을 배려하기가 어렵다고 느낀다. 대인관계에서 고립되고 좌절감을 느낀다. 타인과의 중요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타협하려하지 않는다.
자율성	높은 점수	결단력 있고 독립적이다.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사회적 압력에 저항할 수 있다. 자신의 행동을 내적 동기에 의해 조절한다. 개인적 기준에 의해서 자신을 평가 한다.
	낮은 점수	타인의 평가나 기대에 대하여 걱정한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타인의 판단에 의존한다.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사회적 압력에 동조한다.
환경에 대한 지배력	높은 점수	자신의 환경을 잘 관리하는 능력이 있고 느낀다. 복잡한 외적인 활동 계획을 잘 조절한다. 주위에 있는 기회를 효과적으로 잘 사용한다. 개인적 필요나 가치에 적합한 환경을 선택하거나 적합한 환경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낮은 점수	일상적인 일들을 다루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주의 환경을 변화시키거나 향상시킬 수 없다고 느낀다. 주위에 있는 기회를 인식하지 못한다. 외부 세계에 대한 통제력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삶의 목적	높은 점수	삶의 목표와 방향감각을 갖고 있다. 과거와 현재의 삶이 의미가 있다고 느낀다. 왜 사는지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신념을 갖고 있다. 생활에 목표와 목적이 있다.
	낮은 점수	삶에 의미가 부족하다고 느낀다. 삶의 목표나 방향감각이 거의 없다. 과거의 삶의 목적을 알지 못한다. 삶의 의미를 부여할 신념이나 태도를 갖고 있지 않다.
개인적 성장	높은 점수	계속적으로 발달한다고 느낀다. 자신이 성장하고 발전되어 감을 느낀다. 새로운 경험에 대하여 개방적이다.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시키려고 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과 자신의 행동이 향상됨을 느낀다. 자기 자신을 보다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간다.
	낮은 점수	개인적인 침체에 빠져있다고 느낀다. 시간에 따라 성장이나 발전되어 감을 느끼지 못한다. 삶이 지루하고 재미없다고 느낀다. 새로운 태도나 행동을 발전시킬 수 없다고 느낀다.

출처. Ryff, 1989: 1072; 차경호(2004). “한국과 미국대학생의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324. 재인용

인 면은 쉽게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만 부정적인 면은 인정하고 싶지 않게 된다. 결과적으로 자신의 일부만을 인정하게 되는 셈이 되는데 만약 자신의 일부만을 인정하게 된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은폐하게 된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각도로 인정하고 자신의 과거 삶에 대한 수용을 강조하고 있다. 모든 사람들에게 감정적,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타인에 대한 사랑과 우정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신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가진다는 것은 긍정적 심리작용의 중심이 되어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3)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과 안녕감

(1) 청소년기 특징

오늘날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청소년(akolescence)’이란 용어는 라틴어의 Adolescere에서 유래한 것으로 신체적 성숙뿐만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사회적인 성숙을 의미한다. 연령적으로는 Hurlock은 13,14세부터 17세까지를 청년전기, 18세부터 20세까지를 청년후기로 나누었고, Ryan은 12세부터 15세까지를 청년전기, 15세부터 20세까지를 청년후기로 나누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기란 다른 발달 과정에 비해 변화의 정도가 가장 큰 시기로, 신체적으로는 신체의 급속한 성장과 생리적인 변화가 일어나 자신의 신체에 대한 관심이 증대 된다. 특히 여자의 경우 변화하는 자신의 신체에

민감해 지며 의상이나 몸치장에도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장병립, 1979: 113).

사회적인 면으로는 청소년기에는 급속한 변화로 인하여 소속감을 잃게 되고 성인 사회의 긴장을 경험하게 되므로(김성태, 1986: 77), 따라서 동료 집단에 수용되기 위하여 공통된 헤어스타일, 옷차림, 언어사용으로부터 약간의 비행행위에 이르기까지 동조에 대한 압력에 굴복할 수 있다.

심리적으로는 자아의식의 발달하고 성향이 높아 강한 경쟁심이 발생된

다. 또한 부모에 대한 의존성에서 탈피하여 독립된 개인으로서 자신의 인생관,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지만(오두경, 1990: 14), 자신이 되고자 하는 이상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 심리적으로 항상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확신보다 외부의 지원을 몹시 원한다(유명의, 1992: 11-14). 그 결과 궁극적으로 사회적 인정을 얻으려는 욕구가 현저히 나타난다.

(2) 청소년기 심리적 특성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단계에 있는 청소년들은 다양한 발달과업으로 인해 다른 인생 단계에서 보기 드문 여러 가지 독특한 행동들, 특히 고양된 자의식, 자아 중심성, 수치심, 수줍음, 패거리 짓기, 이상주의, 과시행동·무모한 행동(폭주족, 약물복용, 위험추구행동)에 대한 예민함 등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주로 청소년 시기의 특징적인 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성인의 기준에 비추어 수용될 수 없는 이상한 행동이 나타나기도 한다(윤진·김인경, 1994: 101-123; 윤원숙, 2003: P5). 위의 특성들 중에서 본 연구와 관계있는 심리적 특성 중 자의식과 자아중심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은 다음과 같다(윤원숙, 2003: 5)

① 자의식 (Self-Consiousness)

Fenigstein, Scheier와 Buss는 자의식은 개인의 관심의 초점이 자신의 내적 사고나 감정, 행동 등에 집중하게 되는 객관적 자기자각이론(objective self-awareness theory)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자기자각상태의 기질적 성향 즉, 주의(attention)의 초점을 자아(selfe)에 두는 개인의 일관되고 지속적인 성향으로 간주되고 있다. 또한 이를 기초로 자의식에서의 이러한 개인차가 개인의 태도나 행동변화의 차이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 가정하여,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써 자의식 척도 (Self-Consciousness Scale: SCS)를 개발하였다.

자의식은 공적 자의식(public self-consciousness), 사회적 불안감(social anxiety)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분된다. 그중에서 공적 자의식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사회적 객체로서의 자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의복착용이나 인상형성, 개인의 외적 행동양식 등의 자기표현에 관심을 갖는 특성을 말한다. 사적 자의식은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 태도, 가치, 동기 등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는 잘 드러나지 않는 자아의 개인적이고 은밀한 측면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특히 다른 사람보다 자신의 내적 사고나 감정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심리적 특성이다.(Fenigstein, Scheier & Buss, 1975; 윤원숙 2003: 6. 재인용)

일반적으로 자의식의 정도는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높고(신영주, 1996: 39),공적 자의식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으며(양은주, 1993: 42), 사적 자의식과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은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Enright, Shukla, & Lapsley, 1997: 김희창, 1998: P4, 재인용).

이상의 연구 결과를 살펴볼 때 자의식은 연령, 성별, 자아중심성과 관계가 있으며, 공적 자의식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때, 자신이 누군가로부터 관찰되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갖기 쉬우며,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 자신의 실제 인상을 예언하는데 더 정확히 작용된다고 말할 수 있겠다. 한편 사적 자의식이 높은 사람들은 태도와 행동간의 일관성이 있고, 자신의 평가에 대한 확신이 높으며, 일반적 판단시 외부의 영향력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신의 지각된 경험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윤원숙, 2003: 7).

② 자아중심성

자아중심성이란 일반적으로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 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Elkind는 Piaget 인지발달이론의 자아 중심성 개념을 청소년기로 확장하여, 형식적 조작 능력을 획득하는 과정의 초기단계에서 사고의

분화 능력이 미숙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청소년들의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청소년기 자아 중심성(adolescent egocentrism)이라 하였다. 즉 인지발달에 최종단계인 형식적 조작 단계에서 청소년들은 자신의 사고를 개념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사고도 개념화할 수 있지만, 자신과 타인의 생각이 똑같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남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자신들의 믿는 바와 동일하게 타인들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확신하는 경향이 있다(김인경, 1993: 7)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은 상상속의 청중(imaginary audience)과 개인적 우화(personal fable)라는 두 가지 특성으로 구분되며, 그 중 상상속의 청중이란 청소년들이 자신의 외모와 행동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도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고 믿는 것으로, 청소년들의 유치하고 요란한 옷차림 등은 자기 자신 스스로가 자신을 매력적이라 여기듯, 남들도 똑같이 자신을 매력적이라 여기며 찬사를 보낼 것이라 믿는, 즉 상상속의 청중을 의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다(고애란·김양진, 1996: 667-681).

또한 연령에 따른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의 경향은 청소년 초기에 상상속의 청중경향이 증가하다가 청소년 후기에 들어서면서 감소하는 곡선적 관계, 또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없게 나타난 서구의 결과와는 달리,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이 청소년 중기 이후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처한 사회 환경적 요인 즉, 대학입시라는 심리적 압력과 갈등 때문에 더 어린 시기에 나타나 이미 해결되었어야 할 과제들이 대학교 시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김인경·장근영, 1992: 143-156).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의 영향요인으로 가족 요인이 많이 제시되고 있는데 가족 관계에서는 가족구성원간의 애착이 클수록 그리고 구성원간의 역할관계의 자율성이 높을수록 상상속의 청중경향이 증가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또한 가정의 경제상태, 어머니의 종교, 학교성적, 여가활동 등과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이 정적인 관계를 보여 가정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종교를 믿고 있을수록, 학교성적이 좋을수록, 그리고 여가활동에 많이 참가할수록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이 높았다(김인경, 1993: 67-70)

이는 청소년기의 자아 중심성 증가현상을 부정적 경험에 의한 발달의 부산물 이라기보다는 정상발달의 일시적인 퇴행현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를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윤원숙, 2003: 9).

③ 청소년기 또래수용

청소년기의 특징은 자신이 겪는 문제들을 또래들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이 크다는 점이다. 이들은 자신을 자신과 비슷한 “동성의 또래가 가진 독특성”에 견주어 봄으로써 사회, 심리적 지지를 받고자 한다(구본용 외, 1994:29-31).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넘어오면서 가장 크게 변화하는 것으로 또래관계의 확장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부모형제를 비롯한 가족의 영향과 선생님을 비롯한 어른들로부터 받는 일반적인 지도, 편달 그리고 사회적 영향에서 벗어나 자신과 연령이나 상황이 비슷한 또래들과 어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의 존재가치를 확인하려고 한다. 이러한 경향으로 인해 이들은 자신들의 사고와 행동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준거집단으로 또래집단을 선택하고 자신이 속한 집단속에서 고민이나 갈등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고, 자신들의 입장에서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즉 이시기에 있어서 비수한 연령들로 구성된 또래집단을 그들에게 있어 행동의 기준이 되며, 사회적, 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윤진 외, 1996: 266-267), 또래로부터의 수용 및 인기는 그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Sebald, 1981; 윤원숙, 2003: 10. 재인용)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에서 ‘또래’는 한 아동이 다른 아동과 비슷한 연령이라는 것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한다. 그리고 또래집단은 친근하고 동등한 지위를 가진 성원들로서 행동상의 복잡성의 수준이 비슷한 상호작용을 하는 집단을 의미한다(Hartup, 1983; 윤원숙. 2003: 10, 재인용).

또래집단으로부터 수용도는 인기도, 사회적 수용도 또는 사회적 지위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된다. 발달론 자들은 일반적으로 아동의 또래집단에서의 위치나 또래관계에서의 인기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회성측정기법

(sociometric technuque)을 사용한다. 사회성측정기법은 비교적 실시방법이 간편하고 문항이 단순하므로 유아기 아동으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널리 적용될 수 있다. 이 기법을 실시할 때 각 아동은 또래집단 내에서 그가 가장 선호하는 특정 수의 이름을 기록하도록 하고 그가 가장 덜 선호하는 아동 수의 또래의 이름을 기록하도록 한다. 따라서 이러한 또래 지명법은 아동의 또래집단에서의 사회적 위치를 측정하는 타당한 평가를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다(김성훈, 2000: 8-9).

또한 음악이나 오락 같은 취미활동, 의복이나 언어유행과 같은 것에서 또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호석, 1989: 15).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또래로부터의 인기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장휘숙, 1993: 273). 또래로부터 수용되는 학생, 즉 인기 있는 학생들은 사회기술이 좋으며, 외모가 매력적이고 자신감에 차 있다. 또한 자기모니터링(김근영, 1994: 18)과 학업의 성취수준이 높으며, 우호적이고 동조적인 경향을 보인다(안진석, 1982: 21). 또한 또래로부터 수용되지 못하는 학생, 즉 비인기 학생들은 고독감이나 우울감, 외로움 등을 느끼고(문은영, 1994: 43-44), 이탈된 또래들과 접촉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공격적이고 비동조적인 행동 경향을 보인다(안진석, 1982: 24).

청소년기의 또래수용을 종합해 보면 자신들의 문제를 또래를 통해 해결하려하며,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또래에서 인정받으려 한다. 또래 관계에서 사회적, 정서적, 심리적 영향을 크게 받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인기가 또래사회의 위치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3. 선행연구 및 연구 분석틀

1) 선행연구

(1)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선행연구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주제로 연구되어 왔다.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오정희, 2006; 정명숙, 2006; 이영희, 2007; 안이향, 2009), 자원봉사활동의 동기(김옥·송미영, 2006; 박정희·김민, 2007; 김성희·김유경, 2010), 자원봉사활동의 만족도(오승환, 2002; 김영호, 2005; 이종남·문영미, 2009), 자원봉사활동의 효과 및 영향(문성호·문호영, 2009; 허성호·정태연, 2010; 허승호·정태연, 2010; 우정자, 2011), 자원봉사활동 과정연구(김도희·김은영·김경희·이영선, 2007; 문성호·정경은·한지연, 2009), 청소년 자원봉사 정착방안(김정용, 2004),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문제점(우룡, 2003), 청소년 자원봉사교육프로그램개발(우정자·김형주·김은영·이혜경, 2007), 청소년 자원봉사의 인식 및 참여태도(김옥, 2011) 등이 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에서 이영희 (2007)는 청소년들의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센터 및 기관과 단체에서 우수 청소년자원봉사자에게 표창과 프로그램 개발 공모를 더욱 확대 실시해야하며 제도적으로 안전을 위하여 보험제도를 개발하여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자원봉사인증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인증제를 도입하여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사전 교육 실시, 평가의 기록 등을 통하여 상급학교 진학 및 취업 시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참고자료로 활용해야한다고 하였다.

자원봉사활동의 동기에 관한 연구로서 박정희·김민(2007)은 우리나라 학업청소년이라면 의무적으로 누구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여야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활동 참여의지는 높으나 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변인은 드물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들은 오늘날 우리의 청소년자원봉사활동 현장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봉사학습'으로써의 자원봉사활동을 기대하기는커녕 자원봉사활동 자체의 순수한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자원봉사활동'의 원래 개념에도 크게 못 미치는 있음을 명징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자원봉사활동의 효과 및 영향에 관한 연구로 허성호·정태연(2010)은 자원봉사활동의 유무집단에 따른 차이는 발달단계별로 조금씩 달랐다. 중학

생 시기의 경우 직업성숙도나 진로성숙도와 같은 변인에서는 자원봉사의 유무집단에 따른 차이가 없었지만, 관계 및 정서적인 면에 해당하는 부모 애착과 친구애착, 그리고 자아관과 관련된 자기신뢰는 자원봉사를 통해 긍정적으로 개선되었다. 고등학생 때는 거의 모든 면에서 자원봉사가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자원봉사가 직로성숙도나 직업성숙도의 측면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고, 특히 자아관과 관련되는 모든 변인을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탈행동의 감소와 삶의 만족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 시기의 경우, 자원봉사가 삶의 만족도를 크게 개선시키는 역할을 했으며, 직업성숙도와 진로성숙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모형에서 관계성과 자아관이 일상생활을 거쳐 진로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 이종남·문영미(2009)는 중고생자원봉사활동 총시간, 자원봉사활동 태도,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리더십을 향상시키는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 대상자의 자원봉사활동 시간이 자원봉사활동을 집중적으로 하기에는 비교적 짧은 1회 1~2시간이었다는 점, 자원봉사활동 태도와 만족도가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사례가 더 많았던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볼 때 단순히 청소년 자원봉사활동만으로는 리더십이 높아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이 리더십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자원봉사활동의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선행연구

삶의 질은 학자들과 일반 대중 사이에서 일상적으로 폭넓게 언급되고 있는 용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어에 대한 규정화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삶의 질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다. 삶의 질이란 용어 대신 안녕(well-being), 복지(welfare), 생활수준(standard of life), 만족도(satisfaction), 행복감

(happiness) 같은 유사 개념의 용어를 사용하여 왔다(Schuessler, 1985; 고승덕, 1995: 10. 재인용)

삶의 질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아 쾌락적 관점에서 삶의 질을 단순하게 측정하는 것보다 가치 있는 일을 행함으로 얻어지는 행복에 초점이 맞춰진 행복론적 관점에서 주관적 삶의 질을 측정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시도의 일환으로 등장한 것이 심리적 안녕감이다.

Campbell(1981)은 건강, 가족관계, 고용, 친구관계, 거주, 여가활동 등 최소 12영역에서의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여 통합한 다음 이를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으로 개념화하였다(김경순, 2006: 7. 재인용).

최근 삶의 질의 중요한 흐름인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연구에서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주제로 부모양육태도(신인숙, 1988; 유영달, · 이은지, 2010), 청소년의 긍정적착각(고재홍 · 조기영, 2003; 이순자, 2009), 청소년의 부모애착(김경연, 1987, 김정문, 2008; 윤명숙 · 최정민, 2011), 자아해석 방식(양명순 · 하정희, 2006), 사회적지지, 희망 및 문제해결 대처(원두리, 2011), 삶의 의미와 정서조절 양식(신주연 · 이윤아 · 이기학, 2005), 방과 후 자율체육활동(이충섭, 1999), 공감능력(조한익 · 이미화, 2010), 부모의 양육행동(서진숙 · 이동혁, 2010), 청소년의 적응유연성(정규석, 2011), 자아해석 방식(양명순 · 하정희, 2006), 변혁적 리더십(김경아 · 성은정, 2010), 공감능력과 친사회적적 행동(조한익 · 이미화, 2010) 등이 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고재홍 · 조기영 (2003)은 청소년들은 타인보다 자신을 높게 평가하는 자기고양 편향을 보여 주었다. 특히 긍정적 측면에서 자기고양편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둘째, 통제착각에서는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들의 크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성은 부정적 사건에서의 통제착각 차이에 기인하였다. 셋째, 비현실적 낙관주의에서도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들이 크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성은 긍정적 사건에서의 발생기대 차이에 기인하였다. 넷째, 세 가지 긍정적 착각과 심리적 안녕감간의 관계분석에서는 전체적으로 통제착각과 자기고양 편향이 클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지만, 비현실적 낙관주의와 안녕감간의 관계는 미미하였다. 결

론적으로 기존연구들에서 혼용하여 사용하던 세 종류의 긍정적 착각 중에서 심리적 안녕감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지닌 것은 통제착각이었음이 밝혀졌다.

이순자(2009) 청소년기는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주어진 과업에 대한 부담과 정서적, 신체적 변화에 대한 불안정감으로 인해 혼란스러움을 경험한다. 이처럼, 불안정한 사춘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높일 수 있다면 보다 안정적인 심리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건강한 사춘기를 보내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기의 자기효능감 형성은 인생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친다.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태도는, 자신이 해결해야 할 모든 과제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조한익·이미화(2010)는 공감능력과 친사회적 행동 및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공감능력과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에서 친사회적 행동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고자 첫째, 공감능력의 하위요인인 관점취하기와 공감적 관심은 친사회적 행동과 심리적 안녕감과 모두 정적 상관을, 상상하기는 친사회적 행동과 정적상관을, 개인적 고통은 친사회적 행동과 심리적 안녕감 모두와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둘째,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공감능력에는 관점취하기와 공감적 관심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점취하기와 공감적 관심이 공감의 중요한 요소임을 의미한다 셋째, 친사회적 행동은 공감능력의 하위 요인 중 관점취하기, 공감적 관심과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감능력은 친사회적 행동을 함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강승희(2010)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관련 변인들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은 부애착과 모애착 수준 및 심리적 안녕감이 높을수록, 그리고 우울 수준이 낮을수록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경로분석 결과, 본 연구의 최종 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하여 본 연구의 최종 모형은 경험적 자료에 잘 부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최종모형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 청소년들의 부모 애착 정도, 우울,

그리고 심리적 안녕감 변인이 7개의 경로를 통해 학교생활적응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관련변인들의 학교생활적응 전체 변량에 대한 설명력은 36%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경로모형에서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전체효과가 가장 큰 변인은 심리적 안녕감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결과를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논의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유영달·이은지(2010)는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안녕감 변량의 약 10%를 설명하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 흥미롭게도, 아버지와 어머니 중 지각된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과 더 큰 상관관계를 보였다. 둘째,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 전체에 전반적으로 높은 영향을 미치는 부모 양육태도는 부모성취(특히 모성취)와 부모애정(특히 부애정)으로 나타났다. 셋째, 청소년의 자기분화 수준이 그들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설명량 약 22%)은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설명량 약 10%)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자기분화 수준은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이 증명되었으며, 이러한 매개의 수준은 완전매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석(2011)은 적응유연성의 하위변인군과 안녕감의 하위변인군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갖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즉, 청소년의 적응유연성이 높을수록 안녕감 수준도 높아지며, 적응유연성의 모든 하위변인이 안녕감과 높은 정적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정연(1987)은 청소년의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청소년기는 자신의 가치성을 평가하고 판단하며 행동과 적응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인 자아 존중감 확립이 발달과업인 시기이다. 이러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인생의 전 단계에서 생활의 행복과 만족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데 자아존중감은 부모의 영향을 받고 있다 국내연구에서도 부모의 애정적 태도는 자녀의 자아 존중감을 높여준다고 하였다.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은 자원봉사활동의 유무집단에 따른 차이는 발달 단계별로 조금씩 달랐으며, 관계 및 정서적인 면에 해당하는 부모애착과

친구애착, 그리고 자아관과 관련된 자기신뢰는 자원봉사를 통해 긍정적으로 개선되었으며, 고등학생 때는 거의 모든 면에서 자원봉사가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특히 청소년의 자아관과 관련되는 모든 변인을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탈행동의 감소와 삶의 만족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허성호·정태연, 2010: 143-164).

여러 연구자들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이러한 심리적인 안녕감은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일탈행동, 타인애착, 정서조절,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으로 전인적인 인간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권장하게 될 것이다. 청소년시절부터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시민의식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사회의 일원으로 발전해 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청소년 자원봉사활동과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은 청소년 시절 친구 관계나 학업성취 등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은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정책으로 자원봉사활동이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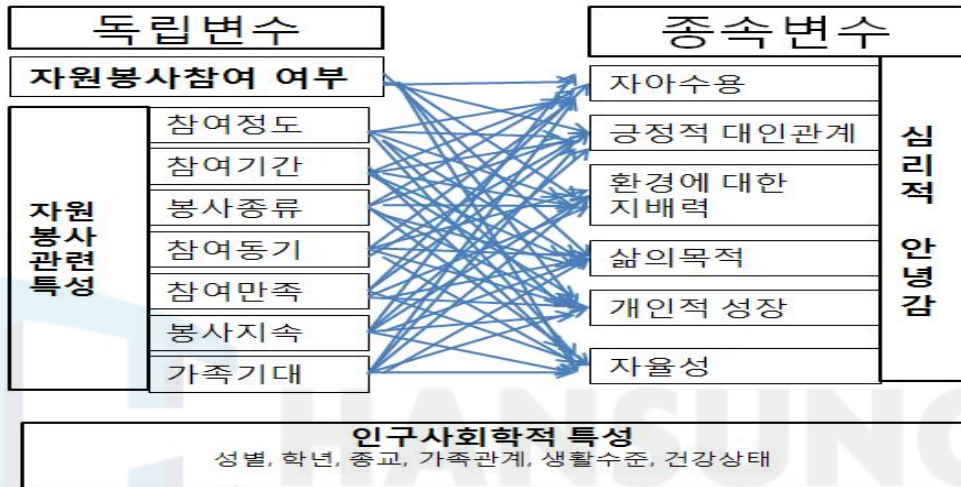
2) 연구 분석틀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이 청소년들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참여동기 및 만족도의 청소년 심리적 안녕감 상관관계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그림 3]과 같이 연구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성별, 학년, 종교, 가족관계, 생활수준, 건강상태 등이며, 자원봉사관련 특성으로는 자원봉사활동의 참여정도, 참여시간, 참여기간, 참여동기, 참여종류 및 만족이며, 그리고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은 자아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환경에 대한 지배력,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 자율성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세부항목별 문항번호와 및 신뢰도는 <표 8>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리적 안녕감의 Cronbach $\alpha=.844$ 이며, 자아수용의 Cronbach $\alpha=.403$, 환경에 대한 통제력의 Cronbach $\alpha=.723$, 개인적 성장의 Cronbach $\alpha=.441$, 삶의 목적의 Cronbach $\alpha=.466$, 긍정적 대인관계의 Cronbach $\alpha=.618$, 자아수용의 Cronbach $\alpha=.608$ 로 나타났다.

[그림 3] 연구 모형



<표 8> 심리적 안녕감 척도 세부문항별 문항번호 및 신뢰도

변인	문항	문항수	크롬바 α
자아수용	1*, 2, 3	3	.403
환경에 대한 통제력	15, 16, 17	3	.723
개인적 성장	7, 10*, 11	3	.441
삶의 목적	8*, 9, 18*	3	.466
긍정적 대인관계	4*, 5*, 6	3	.618
자아수용	12* 13, 14	3	.608
전체		18	.844

* 는 역 코딩임

3) 연구 가설

연구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1.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이 자원봉사활동에 비참여하는 청소년보다 심리적 안녕감 수준이 높을 것이다.

연구가설 2.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특성은 심리적인 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3.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심리적 안녕감은 집단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4. 자원봉사활동의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심리적 안녕감의 세부적인영역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Ⅲ. 조사 연구 및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은 남자 100(50%), 여자 100(50%)이며, 학교는 초등학생 102명(51.0%), 중학생 (98명, 49%)이며, 종교는 개신교 37명(18.5%), 천주교 21명(10.5%), 불교 16명(8.0%), 없다 115명(57.5%), 기타 11명(5.5%)으로 종교인(85명, 42.5%) 대 비종교인(115명, 57.5%)이 4대 6이었다.

가족관계는 “매우 원만하다”(85명, 42.5%), “원만하다”(79명, 39.5%), “그저 그렇다”(30명, 15.0%), “원만하지 않다”(6명, 3.0%)로 “원만하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82.0%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대상자보다 매우 많았다.

부모의 경제상황은 “매우 좋은 편이다” 28명(14.0%), “좋은 편이다” 142명(71.0%), “어려운 편이다” 28명(14.0%), “매우 어려운 편이다” 2명(1.0%)로 좋은 편이라고 응답하다고 응답한 대상자(170명, 85.0%)가 어려운 편이다(30명, 15.0%)에 비해 5배 이상이나 되었다.

건강상태는 “매우 건강하다”(61명, 30.5%), “건강한 편이다”(103명, 51.5%), “가끔 아프다”(29명, 14.5%), “자주 아프다”(7명, 3.5%)로 “건강한 편이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82.0%로 “아프다”고 응답한 대상자보다 매우 많았다.

<표 9>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구분		빈도	퍼센트
성별	남자	100	50.0
	여자	100	50.0
	합계	200	100.0
학교	초등학생	102	51.0
	중학생	98	49.0
	합계	200	100.0
종교	개신교	37	18.5
	천주교	21	10.5
	불교	16	8.0
	없다	115	57.5
	기타	11	5.5
	합계	200	100.0
가족관계	매우 원만하다	85	42.5
	원만하다	79	39.5
	그저 그렇다	30	15.0
	원만하지 않다	6	3.0
	합계	200	100.0
부모경제력	매우 좋은 편이다	28	14.0
	좋은 편이다	142	71.0
	어려운 편이다	28	14.0
	매우 어려운 편이다	2	1.0
	합계	200	100.0
건강상태	매우 건강하다	61	30.5
	건강한 편이다	103	51.5
	가끔 아프다	29	14.5
	자주 아프다	7	3.5
	합계	200	100.0

2. 자원봉사활동 참여자 활동내용

자원봉사활동 참여자 활동내용은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참여 정도는 월1회 69명(71.1%), 월2회 21명(21.6%), 월3회 4명(4.1%), 월4회 이상 3명(3.1%)로 조사 대상자의 대부분이 월1회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원봉사활동 1회 시간은 “1시간미만” 31명(32.0%), “2시간미만” 28명(28.9%), “3시간미만” 19명(19.6%), “3시간 이상” 19명(19.6%)으로 조사대상자의 60%이상이 1-2시간 정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봉사활동기간은 “1년 미만” 40명(41.2%), “1-3년 미만” 34명(35.1%), “3-5년 미만” 6명(6.2%), “5년 이상” 17명(17.5%)으로 “1년 미만”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1-3년 미만”. “5년 이상” 순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종류는 “단순노력봉사” 50명(51.5%), “행정분야” 4명(4.1%), “의료분야” 5명(5.2%), “교육문화분야” 23명(23.7%), “기타” 15명(15.5%)로 반 이상이 단순노력봉사로 나타났다.

자원봉사 참여에 대한 금전적 대가보상여부는 “있다” 10명(10.3%), “없다” 87명(89.9%)로 대부분 금전적 대가보상은 바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자원봉사활동 참여자 활동내용

구분		빈도	퍼센트
자원봉사활동 참여 정도는	월 1회	69	71.1
	월 2회	21	21.6
	월 3회	4	4.1
	월 4회 이상	3	3.1
	합계	97	100.0
자원봉사활동 1회 시간	1시간 미만	31	32.0
	2시간 미만	28	28.9
	3시간 미만	19	19.6
	3시간 이상	19	19.6
	합계	97	100.0
봉사활동 기간	1년 미만	40	41.2
	1-3년 미만	34	35.1
	3-5년 미만	6	6.2
	5년 이상	17	17.5
	합계	97	100.0
현재하고 있는 자원봉사 종류	단순노력봉사	50	51.5
	행정분야	4	4.1
	의료분야	5	5.2
	교육문화 분야	23	23.7
	기타	15	15.5
	합계	97	100.0
자원봉사 참여에 대한 금 전적 대가보상여부	있다	10	10.3
	없다	87	89.7
	합계	97	100.0

3. 자원봉사활동 참여자의 인식

조사 대상자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식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교적인 신념의 실천” 1명(1.1%), “주위 사람들의 권위를 따라서”가 61명(62.9%), “보람 있는 여가를 보내기 위해서” 7명(7.2%),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좋아서” 6명(6.2%),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얻기 위해서” 3명(3.1%), “지역사회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서” 3명(3.1%), “기타” 16명(16.5%)로 대부분 “주위 사람들의 권위를 따라서”가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낮지만 그 다음은 “보람 있는 여가를 보내기 위해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좋아서”로 나타났으며, “종교적인 신념의 실천”으로 자원봉사한다는 인식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현재 봉사활동의 만족에 대한 인식은 “매우 만족한다” 7명(7.2%), “만족한다” 77명(79.4%), “불만족이다” 10명(10.3%), “매우 불만족스럽다” 3명(3.1%)로 대부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봉사활동에 대해서는 “계속할 것이다” 68명(70.1%), “그만 둘 것이다” 29명(29.9%)로 자원봉사활동을 계속하겠다는 응답한 대상자가 그만둘 것이라고 응답한 대상자의 배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을 중단하게 될 것이라고 응답한 대상자의 봉사활동을 중단하는 이유는 “활동이 힘들어서” 10명(34.5%), “시간이 없을 것 같다” 15명(51.7%), “장소가 멀다” 3명(10.3%), “비용이 든다” 1명(3.4%)로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자원봉사 활동을 중단하게 될 것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1/2이 넘게 나타났다.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가족의 기대는 “매우 자랑스러워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 10명(10.3%), “좋아하는 편이다” 50명(54.5%), “관심이 없다” 33명(34.0%), 기타 4명(4.1%)로 조사 대상자의 2/3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1/3은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활동의 개선에 대한 인식은 “금전적인 보상이 더 많아졌으면” 10명(10.3%), “맡은 일이 보다 다양해 졌으면” 23명(23.7%), “사교적인 기

회가 더 많아 졌으면” 5명(5.2%),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면” 25명(25.8%), “없음” 18명(18.6%)로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길 바라는 것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봉사활동에서 맡은 일이 보다 다양해지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자원봉사활동 참여자의 인식

내용		빈도	퍼센트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 동기	종교적인 신념을 실천하기 위해서	1	1.0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얻기 위해서	3	3.1
	보람 있는 여가를 보내기 위해서	7	7.2
	지역사회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서	3	3.1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좋아서	6	6.2
	주위사람들의 권유를 따라서	61	62.9
	기타	16	16.5
	합계	97	100.0
현재 봉사활동에 만족하는가	매우 만족한다	7	7.2
	만족한다	77	79.4
	불만족이다	10	10.3
	매우 불만족스럽다	3	3.1
	합계	97	100.0
향후 봉사활동은 어떻게	계속할 것이다	68	70.1
	그만 둘 것이다	29	29.9
	합계	97	100.0
봉사활동 중단 이유	활동이 힘들다	10	10.3
	시간이 없을 것 같다	15	15.5
	장소가 멀다	3	3.1
	비용이 든다	1	1.0
	합계	29	29.9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가족의 기대	매우 자랑스러워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	10	10.3
	좋아하는 편이다	50	51.5
	관심이 없다	33	34.0
	기타	4	4.1
	합계	97	100.0
자원봉사활동에 개선할 부분	금전적인 보상이 더 많아졌으면	10	10.3
	맡은 일보다 다양해 졌으면	23	23.7
	사교적인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5	5.2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었으면	25	25.8
	맡은 일이 보다 쉬워졌으면	16	16.5
	없음	18	18.6
	합계	97	100.0

4. 자원봉사활동의 결과 인식

자원봉사활동의 결과 인식은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삶의 보람을 느낀다”에서 그렇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31명(34.0%)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17명(17.6%)보다 2배로 나타났으며, “폭넓은 대인관계 맺음”에서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14명(24.8%), 그렇다고 응답이 16명(16.5%)으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여가시간 활용”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32명(33.0%), 그렇다는 응답이 27명(27.8%)로 여가시간 활용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조금 높게 나타났다.

“본인의 성숙이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인식에서는 그렇다는 응답이 30명(31.0%),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15명(15.5%)로 그렇다는 응답이 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성장의 기회가 된다”는 결과인식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응답이 41명(42.3%),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16명(16.4%)로 그렇다는 응답이 2배 이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자원봉사활동의 결과 인식

구분		빈도	퍼센트
삶의 보람을 느낀다	전혀 그렇지 않다	5	5.2
	그렇지 않다	12	12.4
	보통이다	47	48.5
	그렇다	29	29.9
	매우 그렇다	4	4.1
	합계	97	100.0
폭넓은 대인관 계 맺음	전혀 그렇지 않다	6	6.2
	그렇지 않다	18	18.6
	보통이다	57	58.8
	그렇다	12	12.4
	매우 그렇다	4	4.1
	합계	97	100.0
여가시간 활용	전혀 그렇지 않다	12	12.4
	그렇지 않다	20	20.6
	보통이다	38	39.2
	그렇다	24	24.7
	매우 그렇다	3	3.1
	합계	97	100.0
본인의 성숙이 나 발전에 도 움	전혀 그렇지 않다	5	5.2
	그렇지 않다	10	10.3
	보통이다	52	53.6
	그렇다	28	28.9
	매우 그렇다	2	2.1
	합계	97	100.0
자기 성장의 기회가 된다	전혀 그렇지 않다	8	8.2
	그렇지 않다	8	8.2
	보통이다	40	41.2
	그렇다	34	35.1
	매우 그렇다	7	7.2
	합계	97	100.0

5. 조사대상자의 안녕감 수준

조사대상자의 자원봉사 참여자의 안녕감의 수준과 자원봉사 비참여자의 안녕감 수준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자원봉사 참여자의 안녕감 수준

조사대상자의 자원봉사 참여자의 안녕감 수준은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 4, 5, 8, 10, 12, 18문항은 역문항으로 처리하였다. 총평균은 5점 척도에서 3.46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세부영역별로는 ‘자율성’ M=3.15, ‘긍정적 대인관계’ M=3.70, ‘개인적성장’ M=3.67, ‘삶의 목적’ M=3.52, ‘자아수용’ M=3.25, ‘환경에 대한 통제력’ M=3.48로 ‘긍정적 대인관계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개인적성장’, ‘삶의 목적 수준’이었다. 세부영역 중 가장 낮은 영역은 ‘자율성’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나는 앞으로 내 인생을 크게 발전시키거나 변화하려는 노력을 포기했다”(4.0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친구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나에게 어렵다”(3.99), “나는 다른 사람들과 따뜻하고 신뢰할 만한 관계를 경험해 오지 못했다”(3.80), “나는 오늘 하루만 중요할 뿐 미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3.71) 순이었으며, 가장 낮은 내용은 “나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경향이 있다”(2.89)이었으며, 그 다음은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던 대로 되어 기쁘다”(2.89), “나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경향이 있다”(2.89) 순으로 나타났다.

<표 13> 자원봉사 참여자의 안녕감 수준

N=97

구분	문항 번호	내용	평균	표준 편차
자율성	1*	나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경향이 있다.	2.89	0.748
	2	나는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로 나 자신을 평가한다	3.38	0.742
	3	.나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과 다르더라도 내 의견에 자신 있다.	3.19	0.755
	소계 평균		3.15	
긍정적 대인 관계	4*	나는 다른 사람들과 따뜻하고 신뢰할 만한 관계를 경험해 오지 못했다	3.8	0.931
	5*	친구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나에게 어렵다	3.99	0.952
	6	나는 너그럽고 필요하면 친구에게 기꺼히 시간도 내어 주는 사람으로 생각한다	3.32	0.836
	소계 평균		3.70	
개인적 성장	7	.나는 가끔 친구와 가족에게 내가 할 일은 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3.32	0.798
	10*	나는 앞으로 내 인생을 크게 발전시키거나 변화하려는 노력을 포기했다.	4.04	0.889
	11	.나는 나 자신과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3.65	0.89
	소계 평균		3.67	
삶의 목적	8*	나는 오늘 하루만 중요할 뿐 미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3.71	0.866
	9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 없이 방황하지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3.43	0.866
	18*	가족이나 친구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나를 기운 나쁘게 한다.	3.42	0.988
	소계 평균		3.52	
자아 수용	12*	여러 측면에서 볼 때 나는 내가 사는 방법이 실망스럽다.	3.62	1.045
	13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던 대로 되어 기쁘다	2.89	0.802
	14	.나는 내 성격의 대부분이 마음에 든다	3.24	0.826
	소계 평균		3.25	
환경에 대한 통제력	15	.일반적으로 나는 나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느낀다	3.32	0.798
	16	나는 끊임없이 배우고, 변화하고, 성장하는 과정이다.	3.69	0.834
	17	나는 일상생활을 잘 관리해 나가고 있다.	3.45	0.764
	소계 평균		3.48	
총 평균			3.46	

* 1, 4, 5, 8, 10, 12, 18 역코딩 처리 했음

2) 자원봉사활동 비 참여자의 안녕감 수준

조사대상자의 자원봉사 비 참여자의 안녕감 수준은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 4, 5, 8, 10, 12, 18문항은 역문항으로 처리하였으며, 5점 척도에서 총평균은 3.71로 높게 나타났다. 세부영역별로는 ‘자율성’ M=3.22, ‘긍정적 대인관계’ M=3.97, ‘개인적성장’ M=3.93, ‘삶의 목적’ M=3.80, ‘자아수용’ M=3.35, ‘환경에 대한 통제력’ M=3.64로 긍정적 대인관계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개인적성장’, ‘삶의 목적 수준’이었다. 세부영역 중 가장 낮은 영역은 ‘자율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평균 4.0이 넘는 요소는 “나는 앞으로 내 인생을 크게 발전시키거나 변화하려는 노력을 포기했다”(4.48), “친구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나에게 어렵다”(4.43), “나는 끊임없이 배우고, 변화하고, 성장하는 과정이다”(4.07), “나는 오늘 하루만 중요할 뿐 미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4.07), “나는 다른 사람들과 따뜻하고 신뢰할 만한 관계를 경험해 오지 못했다”(4.06), “나는 다른 사람들과 따뜻하고 신뢰할 만한 관계를 경험해 오지 못했다”(4.04)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수준이 낮은 요인은 “나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경향이 있다”(2.94),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던 대로 되어 기쁘다”(3.01), “나는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로 나 자신을 평가한다”(3.30)으로 나타났다.

<표 14> 자원봉사활동 비참여자의 안녕감 수준

N=103

구분	문항 번호	내용	평균	표준 편차
자율성	1*	나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경향이 있다.	2.94	0.916
	2	나는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로 나 자신을 평가한다	3.3	0.958
	3	나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과 다르더라도 내 의견에 자신 있다.	3.42	0.869
	소계 평균		3.22	
긍정적 대인 관계	4*	나는 다른 사람들과 따뜻하고 신뢰할 만한 관계를 경험해 오지 못했다.	4.06	0.916
	5*	친구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나에게 어렵다	4.39	0.783
	6	나는 너그럽고 필요하면 친구에게 기꺼히 시간도 내어 주는 사람으로 생각한다	3.47	0.948
	소계 평균		3.97	
개인적 성장	7	나는 가끔 친구와 가족에게 내가 할 일은 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3.39	0.843
	10*	나는 앞으로 내 인생을 크게 발전시키거나 변화하려는 노력을 포기했다.	4.48	0.712
	11	나는 나 자신과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3.93	0.91
	소계 평균		3.93	
삶의 목적	8*	나는 오늘 하루만 중요할 뿐 미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4.07	0.963
	9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 없이 방황하지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3.49	1.092
	18*	가족이나 친구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나를 기운 나쁘게 한다.	3.86	1
	소계 평균		3.80	
자아 수용	12*	.여러 측면에서 볼 때 나는 내가 사는 방법이 실망스럽다.	3.76	0.995
	13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던 대로 되어 기쁘다	3.01	1.052
	14	.나는 내 성격의 대부분이 마음에 든다	3.3	1.162
	소계 평균		3.35	
환경에 대한 통제력	15	.일반적으로 나는 나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느낀다	3.37	0.804
	16	.나는 끊임없이 배우고, 변화하고, 성장하는 과정이다.	4.07	0.82
	17	.나는 일상생활을 잘 관리해 나가고 있다.	3.5	0.959
	소계 평균		3.64	
총 평균			3.71	

* 1, 4, 5, 8, 10, 12, 18 역코딩처리함

자원봉사활동 참여자와 비 참여자의 심리적 안녕감을 비교 분석해 보면, 자원봉사활동에 비참여자가 참여자 보다 심리적 안정감이 조금 높게 나타났다. 세부 영역에서는 참여자와 비 참여자 모두 ‘긍정적 대인관계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개인적성장’, ‘삶의 목적 수준’이었다. 세부영역 중 가장 낮은 영역은 ‘자아수용’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 참여자의 수준이 참여자의 수준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인 내용으로는 자원봉사활동 참여자와 비 참여자에서 ‘자기 인생에 대한 발전과 변화’와 ‘친구와 친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난 요인은 자원봉사활동 참여자와 비 참여자 모두 “다른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경향”과 “원하던 대로 되어 기쁘다”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원봉사활동 참여자와 비 참여자 모두 심리적 안녕감의 세부적인 요인은 같거나 유사하게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심리적 안녕감의 수준은 각 요인이나 총평균에서도 자원봉사활동 비 참여자가 조금 높게 나타났다. 이는 조사대상자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력을 주는 요인이 자원봉사활동 이외에 다른 요인들이 있다고 본다.

6.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

자원봉사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안녕감은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집단간의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원봉사에 참여하지 않은 집단에 자원봉사에 참여한 집단보다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대상자의 자원봉사 이외의 요인이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조사대상자를 자원봉사 참여자와 자원봉사 비참여자로 나누고 이 두 집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안녕감을 살펴보고 비교 분석하였다.

<표 15> 자원봉사활동 참여와 비참여자의 심리적 안녕감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참여한다	97(48.5)	3.46	.430	-2.903**
참여하지 않는다	103(51.5)	3.65	.494	
합 계	200(100.0)	3.55		

** p<.01

1) 자원봉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

자원봉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안녕감은 <표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 학교, 종교, 가족관계, 부모경제력, 건강상태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는 것으로 집단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심리적 안녕감이 성별에서는 남자(3.33, .437)보다 여자(3.58, .390)가 조금 높으며, 학교에서는 초등학생(3.58, .415)이 중학생(3.33, .410)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교의 사후검증에는 집단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가족관계의 사후검증에서는 “매우 원만하다”(3.65, .423)고 응답한 집단과 “그저 그렇다”(3.21, .421)와 “원만하지 않다”(2.76, .358)의 집단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경제력이 사후검증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집단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건강상태의 사후검증에서는 “매우 건강하다”(3.65, .389)의 집단과 “가끔 아프다”(3.20, .341)과 “자주 아프다”(3.05, .701)의 집단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조사대상자의 자원봉사 참여자의 심리적 안녕감은 여자가 남자보다 높으며, 초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높으며, 가족관계가 원만한 집단이 가족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집단보다 높으며, 건강한 집단이 건강하지 못한 집단보다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자원봉사활동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안녕감 N=97

		빈도(%)	평균	표준편차	t/F
성별	남자	47(48.5)	3.33	.437	-2.985**
	여자	50(51.5)	3.58	.390	
	합계	97(100.0)			
학교	초등 학생	50(51.5)	3.58	.415	3.044**
	중학 학생	47(48.5)	3.33	.410	
	합계	97(100.0)			
종교	개신교	20(20.6)	3.56	.340	3.091**
	천주교	9(9.3)	3.63	.466	
	불교	8(8.2)	3.65	.435	
	없다	55(56.7)	3.40	.421	
	기타	5(5.2)	3.00	.456	
	합계	97(100.0)	3.46	.430	
가족 관계	매우 원만하다	36(37.1)	3.65a	.423	10.646***
	원만하다	37(38.1)	3.49	.383	
	그저 그렇다	20(20.6)	3.21b	.261	
	원만하지 않다	4(4.1)	2.76b	.358	
	합계	97(100.0)	3.46	.430	
부모 경제력	매우 좋은 편이다	15(15.5)	3.64	.538	3.806**
	좋은 편이다	68(70.1)	3.46	.400	
	어려운 편이다	13(13.4)	3.34	.293	
	매우 어려운 편이다	1(1.0)	2.33	.	
	합계	97(100.0)	3.46	.430	
건강 상태	매우 건강하다	30(30.9)	3.65a	.389	5.662**
	건강한 편이다	51(52.6)	3.44	.388	
	가끔 아프다	11(11.3)	3.20b	.341	
	자주 아프다	5(5.2)	3.05b	.701	
	합계	97(100.0)	3.46	.430	

Scheffe 사후검증 a>b(p<.05), *p<.05 **P<.01 ***p<.001

크롬바 α=.824

통계학적으로 자원봉사 참여자의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미로 나타난 ‘성별’, ‘학교’, ‘종교’, ‘가족관계’, ‘부모의 경제력’, ‘건강상태’에 따른 세부영역별 즉 자율성, 긍정적 대인관계, 개인적 성장, 삶의 목적, 자아수용, 환경에 대한 통제력에서 집단간의 차이는 <표 17>과 같다.

성별은 자율성, 개인적 성장과 환경에 대한 통제력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집단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수용, 긍정적 대인관계와 삶의 목적에서는 여자나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는 긍정적 대인관계, 개인적 성장과 삶의 목적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집단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율성, 자아수용과 환경에 대한 통제력에서는 초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종교에서는 삶의 목적에서 집단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후검증에서 종교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관계는 자율성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집단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긍정적 대인관계, 개인적 성장, 삶의 목적, 자아수용, 환경에 대한 통제력에서는 집단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증에서 원만한 집단이 원만하지 못한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경제력은 자율성, 개인적 성장과 삶의 목적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집단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긍정적 대인관계, 자아수용과 환경에 대한 통제력에서는 집단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후검증에서 통계학적으로 집단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건강상태는 자율성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집단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긍정적 대인관계, 개인적 성장, 삶의 목적, 자아수용과 환경에 대한 통제력에서는 집단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후검증에서 개인적 성장은 건강하다는 집단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자원봉사활동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세부영역별 심리적 안녕감 차이

N=97

구분		빈도(%)	자율성			긍정적 대인관계			개인적성장			삶의 목적			자아수용			환경에 대한 통제력						
			M	SD	t/F	M	SD	t/F	M	SD	t/F	M	SD	t/F	M	SD	t/F	M	SD	t/F				
성별	남자	47(48.5)	3.09	.484	-	3.56	.716	-	3.58	.643	-	3.34	.686	-	3.08	.664	-	3.36	.673	-				
	여자	50(51.5)	3.21	.465	1.329	3.84	.667	11.987*	3.75	.567	1.393	3.69	.617	2.658**	3.41	.577	2.596*	3.61	.590	1.901				
학교	초등학생	50(51.5)	3.26	.496	2.386	3.82	.671	-	3.77	.647	-	3.64	.663	-	3.40	.579	-	3.63	.584	-				
	중학생	47(48.5)	3.04	.430	*	3.58	.721	1.684	3.56	.584	1.752	3.40	.665	1.800	3.09	.665	*	3.33	.667	*				
종교	개신교	20(20.6)	3.07	.491	1.169	3.98	.501	1.958	3.72	.585	2.314	3.85a	.439	4.039	3.40	.608	1.570	3.50	.761	1.636				
	천주교	9(9.3)	3.25	.547		3.81	.835		3.89	.577		3.81	.669		3.37	.824		3.67	.408					
	불교	8(8.2)	3.46	.434		3.79	.796		3.75	.707		3.42	1.020		3.58	.345		3.92	.388					
	없다	55(56.7)	3.12	.455		3.61	.717		3.67	.597		3.44	.609		**	3.15		.625	3.42		.623			
	기타	5(5.2)	3.13	.558		3.13	.506		2.93	.279		2.73b	.760		2.93	.760		3.13	.767					
	합계	97(100.0)	3.15	.476			3.70		.702	3.67		.608	3.52		.672	3.25		.639	3.49		.640			
가족관계	매우 원만하다	36(37.1)	3.29	.511	2.223	3.81ab	.683	7.113***	3.86	.604	2.927	3.74a	.662	5.214	3.55a	.529	7.512	3.67a	.662	5.722				
	원만하다	37(38.1)	3.14	.434		3.89a	.561		3.66	.575		3.54a	.641		3.23	.657		3.50b	.553					
	그저 그렇다	20(20.6)	2.98	.452		3.38b	.605		3.42	.593		3.30	.571		2.83b	.465		3.35b	.439					
	원만하지 않다	4(4.1)	2.92	.419		2.58c	1.134		3.33	.609		*	2.58b		.500	**		2.75	.833		***	2.42b	1.032	***
	합계	97(100.0)	3.15	.476			3.70		.702	3.67		.608	3.52		.672	3.25		.639	3.49		.640			
부모 경 제 력	매우 좋은 편 이다	15(15.5)	3.20	.575	1.095	3.64	.761	5.941***	3.91	.811	1.053	3.62	.785	1.167	3.60	.645	7.131	3.89	.709	9.410				
	좋은 편이다	68(70.1)	3.16	.440		3.74	.666		3.61	.555		3.51	.635		3.28	.556		3.48	.559					
	어려운 편이다	13(13.4)	3.10	.498		3.82	.399		3.72	.606		3.54	.198		2.62	.665		3.28	.427					
	매우 어려운 편이다	1(1.0)	2.33	.		1.00	.		3.67	.		2.33	.		3.67	.		1.00	.					
	합계	97(100.0)	3.15	.476			3.70		.702	3.67		.608	3.52		.672	3.25		.639	3.49		.640			
건강 상태	매우 건강하다	30(30.9)	3.07	.506	.789	4.03a	.621	6.663***	3.97a	.602	3.001	3.74	.523	3.961	3.48a	.461	6.253	3.67	.661	2.873				
	건강한 편이다	51(52.6)	3.22	.475		3.63a	.610		3.54b	.566		3.53	.630		3.26a	.634		3.50	.505					
	가끔 아프다	11(11.3)	3.15	.405		3.61	.593		3.48	.503		3.18	.736		2.58b	.732		3.21	.563					
	자주 아프다	5(5.2)	3.00	.471		2.73b	1.188		3.60	.796		*	2.87		1.145	**		3.20	.506		***	2.93	1.362	*
	합계	97(100.0)	3.15	.476			3.70		.402	3.67		.608	3.52		.672	3.25		.639	3.49		.640			

Scheffe 사후검증 a>b>c (p<.05), *p<.05 **P<.01 ***p<.001

2) 자원봉사자 비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

자원봉사자 비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안녕감은 <표 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 종교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집단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5$). 부모의 경제력은 “매우 어려운 편이다”가 1명으로 통계학적으로 사후검증을 할 수 없으며, 가족관계, 건강상태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심리적 안녕감이 학교에서는 초등학생(3.85, .455)이 중학생(3.44, .449)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관계과 부모의 경제력의 사후검증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집단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건강상태의 사후검증에서는 “매우 건강하다”(3.99, .346)의 집단과 “건강한 편이다”(3.58, .416)와 “가끔 아프다”(3.25, .512)의 집단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조사대상자의 자원봉사자 비 참여자의 심리적 안녕감은 초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높으며, 건강한 집단이 “건강한 편이다”와 “가끔 아프다”의 집단보다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자원봉사활동 비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안녕감 N=103

		빈도(%)	평균	표준편차	t/F
성별	남자	53(51.5)	3.65	.480	.007
	여자	50(48.5)	3.65	.514	
	합계	103(100.0)	3.65		
학교	초등 학생	52(50.5)	3.85	.455	4.577***
	중 학생	51(49.5)	3.44	.449	
	합계	103(100.0)			
종교	개신교	17(16.5)	3.66	.535	1.118
	천주교	12(11.7)	3.41	.477	
	불교	8(7.8)	3.57	.493	
	없다	60(58.3)	3.72	.502	
	기타	6(5.8)	3.54	.261	
	합계	103(100.0)	3.65	.494	
가족 관계	매우 원만하다	49(47.6)	3.81	.475	4.634**
	원만하다	42(40.8)	3.53	.442	
	그저 그렇다	10(9.7)	3.45	.557	
	원만하지 않다	6(5.8)	3.02	.432	
	합계	103(100.0)	3.65	.494	
부모 경제 력	매우 좋은 편이다	13(12.6)	3.97	.467	4.972**
	좋은 편이다	74(71.8)	3.65	.464	
	어려운 편이다	15(14.6)	3.33	.488	
	매우 어려운 편이다	1(1.0)	4.33	.	
	합계	103(100.0)	3.65	.494	
건강 상태	매우 건강하다	31(30.1)	3.99a	.346	12.226***
	건강한 편이다	52(50.5)	3.58b	.416	
	가끔 아프다	18(17.5)	3.25b	.512	
	자주 아프다	2(1.9)	3.75	1.139	
	합계	103(100.0)	3.65	.494	

Scheffe 사후검증 a>b(p<.05) *p<.05 **P<.01 ***p<.001 크롬바 α=.849

통계학적으로 자원봉사 비참여자의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미로 나타난 ‘학교’, ‘가족관계’, ‘부모의 경제력’, ‘건강상태’에 따른 세부영역별 즉 자율성, 긍정적 대인관계, 개인적 성장, 삶의 목적, 자아수용, 환경에 대한 통제력에서 집단간의 차이는 <표 19>와 같다.

‘학교’는 긍정적 대인관계와 개인적 성장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자율성, 삶의 목적, 자아수용과 환경에 대한 통제력에서 유의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초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관계’는 자율성, 긍정적 대인관계와 개인적 성장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삶의 목적, 자아수용과 환경에 대한 통제력에서 유의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후검증에서 삶의 목적과 자아수용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환경에 대한 통제력은 원만하다는 집단이 원만하지 않다는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경제력’은 자율성, 긍정적 대인관계와 개인적 성장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삶의 목적, 자아수용과 환경에 대한 통제력에서 유의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후검증에서 모두 집단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는 긍정적 대인관계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율성, 개인적 성장, 삶의 목적, 자아수용, 환경에 대한 통제력에서는 유의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증에서 모두 건강할수록 세부적 영역별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 자원봉사활동 비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세부영역별 심리적 안녕감 차이

N=103

구분		빈도(%)	자율성			긍정적 대인관계			개인적성장			삶의 목적			자아수용			환경에 대한 통제력		
			M	SD	t/F	M	SD	t/F	M	SD	t/F	M	SD	t/F	M	SD	t/F	M	SD	t/F
학교	초등학생	52(50.5)	3.38	.526	2.712	4.05	.610	1.294	4.02	.588	1.676	4.05	.513	3.974	3.67	.819	4.115	3.97	.613	5.385
	중학생	51(49.5)	3.05	.707	**	3.89	.662		3.84	.473		3.56	.735	***	3.04	.711	***	3.31	.620	***
가족 관계	매우 원만하다	49(47.6)	3.37	.658	2.589	4.07	.561	.814	4.01	.599	1.851	4.03	.573	4.803 **	3.60	.869	3.155 *	3.84a	.642	6.189 ***
	원만하다	42(40.8)	3.02	.579		3.88	.670		3.90	.450		3.66	.600		3.19	.766		3.59	.624	
	그저 그렇다	10(9.7)	3.33	.648		3.93	.872		3.83	.527		3.53	.919		2.93	.605		3.17b	.741	
	원만하지 않다	6(5.8)	3.17	.707		3.67	.471		3.17	.236		2.83	1.650		3.00	.000		2.33b	.943	
	합계	103(100.0)	3.22	.641		3.97	.638		3.93	.539		3.81	.677		3.36	.826		3.64	.696	
부모 경제 력	매우 좋은 편이다	13(12.6)	3.36	.700	.250	4.10	.614	1.162	4.00	.745	1.976	4.18	.443	5.424 **	3.95	.792	4.861 **	4.23	.370	7.173 ***
	좋은 편이다	74(71.8)	3.19	.617		4.00	.623		3.94	.479		3.82	.630		3.36	.825		3.62	.672	
	어려운 편이다	15(14.6)	3.22	.752		3.71	.722		3.76	.570		3.33	.797		2.82	.502		3.18	.653	
	매우 어려운 편이다	1(1.0)	3..	.		4.33	.		5.00	.		5.00	.		3.67	.		4.67	.	
	합계	103(100.0)	3.22	.641		3.97	.638		3.93	.539		3.81	.677		3.36	.826		3.64	.696	
건강 상태	매우 건강하다	31(30.1)	3.56a	.512	7.440 ***	4.18	.563	2.667	4.16a	.550	4.145 **	4.06a	.593	3.490 *	3.88a	.763	9.772 ***	4.13	.499	12.622 ***
	건강한 편이다	52(50.5)	3.07b	.521		3.96	.579		3.88	.466		3.78	.593		3.26b	.706		3.56	.596	
	가끔 아프다	18(17.5)	2.96b	.808		3.67	.732		3.65b	.577		3.44b	.856		2.74b	.780		3.07	.691	
	자주 아프다	2(1.9)	4.17	1.179		3.83	1.650		4.17	.707		3.83	1.179		3.17	.707		3.33	1.414	
	합계	103(100.0)	3.22	.641		3.97	.638		3.93	.539		3.81	.677		3.36	.826		3.64	.696	

Scheffe 사후검증 a>b(p<.05) *p<.05 **P<.01 ***p<.001

자원봉사활동 참여자와 비 참여자의 세부영역별 심리적 안녕감에서 자원봉사활동 참여자는 ‘성별’, ‘학교’, ‘가족관계’, ‘부모의 경제력’, ‘건강상태’에 의해 세부영역별 중 긍정적 대인관계, 개인적 성장, 삶의 목적, 자아수용, 환경에 대한 통제력에서 집단간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자원봉사활동 비참여자는 ‘학교’, ‘가족관계’, ‘부모의 경제력’, ‘건강상태’에 의해 심리적 안녕감의 세부영역별 중 삶의 목적, 자아수용, 환경에 대한 통제력에서 집단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즉 자원봉사 참여자는 자율성, 긍정적 대인관계, 개인적 성장, 삶의 목적, 자아수용, 환경에 대한 통제력에 모두 영향을 미쳐 집단간의 차이를 나타내었으나, 자원봉사 비 참여자는 긍정적 대인관계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개인적성장에서도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삶의 목적, 자아수용, 환경에 대한 통제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7. 자원봉사 관련 특성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대상자의 자원봉사 관련 특성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 차이는 <표 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원봉사활동 참여 정도”(0.84, $p>.05$),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 동기”(0.884, $p>.05$)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집단간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자원봉사 기간”(2.827, $p<.05$), “자원봉사 종류”(3.726, $p<.01$), “자원봉사 만족”(3.319, $p<.01$), “자원봉사 지속여부”(5.537, $p<.001$), “가족의 기대”(4.19, $p<.01$)에서는 집단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사후검증에서 “자원봉사 기간”과 “자원봉사 종류”에는 집단간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원봉사 만족”은 “매우 만족한다”와 “매우 불만족스럽다”의 집단간의 차이가 있었다. 즉 “매우 만족한다”는 집단이 “매우 불만족스럽다”의 집단보다 심리적 안녕감이 높았으며, “가족의 기대”에서는 “좋아하는 편이다”와 “관심없다”의 집단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좋아하는 편이다”의 집단이 “관심없다”의

집단보다 심리적 안녕감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원봉사 지속여부”에서는 “자원봉사를 계속할 것이다”의 집단이 “자원봉사를 그만둘 것이다”의 집단보다 심리적 안녕감이 높게 나타났다.



<표 20> 자원봉사 관련 특성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 차이

구분		빈도(%)	평균	표준 편차	t/F
자원봉사활동 참여 정도	월 1회	69(71.1)	3.47	.416	.084
	월 2회	21(21.6)	3.42	.415	
	월 3회	4(4.1)	3.44	.371	
	월 4회 이상	3(3.1)	3.51	1.026	
	합계	97(100.0)	3.46	.043	
자원봉사기간	1년 미만	40(41.2)	3.40	.446	2.827*
	1-3년 미만	34(35.1)	3.39	.414	
	3-5년 미만	6(6.2)	3.78	.251	
	5년 이상	17(17.5)	3.64	.430	
	합계	97(100.0)	3.46	.430	
현재하고 있는 자원봉사 종류	단순노력봉사	50(51.5)	3.48	.426	3.726**
	행정분야	4(4.1)	2.97	.205	
	의료분야	5(5.2)	3.29	.315	
	교육문화 분야	23(23.7)	3.38	.384	
	기타	15(15.5)	3.72	.432	
	합계	97(100.0)	3.46	.430	
자원봉사에 참여하게 된 동기	종교적인 신념을 실천하기 위해서	1(1.0)	3.00		.884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얻기 위해서	3(3.1)	3.51	.224	
	보람 있는 여가를 보내기 위해서	7(7.2)	3.65	.367	
	지역사회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서	3(3.1)	3.40	.658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좋아서	6(6.2)	3.71	.585	
	주위사람들의 권유를 따라서	61(62.9)	3.44	.406	
	기타	16(16.5)	3.38	.477	
	합계	97(100.0)	3.46	.430	
현재 봉사활동에 만족	매우 만족한다	7(7.2)	3.64a	.416	3.319**
	만족한다	77(79.4)	3.48	.427	
	불만족이다	10(10.3)	3.35	.303	
	매우 불만족스럽다	3(3.1)	2.81b	.420	
	합계	97(100.0)	3.46	.430	
봉사활동 지속여부	계속할 것이다	68(70.1)	3.60	.399	5.537***
	그만 둘 것이다	29(29.9)	3.13	.313	
	합계	97(100.0)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가족의 기대	매우 자랑스러워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	10(10.3)	3.59	.571	4.19**
	좋아하는 편이다	50(51.5)	3.57a	.404	
	관심이 없다	33(34.0)	3.26b	.359	
	기타	4(4.1)	3.33	.453	
	합계	97(100.0)	3.46	.430	

*** P<.001 ** P<.01 * P<.05 a>b>c

자원봉사 특성에 관련하여 통계학적으로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미로 나타난 ‘자원봉사 기간’, ‘현재하고 있는 자원봉사 종류’, ‘현재 봉사활동에 만족’, ‘봉사활동 지속여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가족의 기대’에 따른 따른 세부영역별 즉 자율성, 긍정적 대인관계, 개인적 성장, 삶의 목적, 자아수용, 환경에 대한 통제력에서 집단간의 차이는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다.

‘자원봉사 기간’은 자율성, 긍정적 대인관계, 개인적 성장, 자아수용과 환경에 대한 통제력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삶의 목적에서 유의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후검증에서 통계학적으로 집단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현재하고 있는 자원봉사 종류’는 삶의 목적과 환경에 대한 통제력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율성, 긍정적 대인관계, 개인적 성장과 자아수용에서는 유의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후검증에서는 집단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현재 봉사활동에 만족’은 자율성과 자아수용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긍정적 대인관계, 개인적 성장, 삶의 목적과 환경에 대한 통제력에서는 유의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에서 긍정적 대인관계와 삶의 목적에서 만족하다는 집단이 매우 불만족하다는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개인적 성장과 환경에 대한 통제력에서는 집단간이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봉사활동 지속여부’는 자율성, 긍정적 대인관계, 개인적 성장, 삶의 목적, 자아수용과 환경에 대한 통제력 모두에서 봉사활동을 계속하겠다는 집단이 봉사활동을 그만 둘 것이라는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가족의 기대’는 자율성, 긍정적 대인관계, 개인적 성장, 삶의 목적과 환경에 대한 통제력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수용에서 유의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후검증에서 좋아하다는 집단이 관심없다는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21> 자원봉사 관련 특성에 따른 세부영역별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

구분		빈도(%)	자율성			공경적 대인관계			개인적성장			삶의 목적			자아수용			환경에 대한 통제력		
			M	SD	t/F	M	SD	t/F	M	SD	t/F	M	SD	t/F	M	SD	t/F	M	SD	t/F
자원봉사 기간	1년 미만	40(41.2)	3.10	.479		3.61	.751		3.64	.587		3.43	.708		3.23	.684		3.40	.725	
	1-3년 미만	34(35.1)	3.09	.421		3.71	.700		3.63	.650		3.37	.671		3.12	.550		3.44	.573	
	3-5년 미만	6(6.2)	3.17	.517	1.852	4.22	.272	1.373	3.78	.344	.341	4.00	.298	3.786 *	3.61	.390	1.522	3.94	.390	1.629
	5년 이상	17(17.5)	3.39	.125		3.75	.651		3.78	.666		3.88	.485		3.41	.722		3.63	.576	
	합계	97(100.0)	3.15	.048		3.70	.702		3.67	.608		3.52	.672		3.25	.639		.640	.640	
현재하고 있는 자원 봉사 종류	단순노력봉사	50(51.5)	3.17	.473		3.69	.711		3.66	.585		3.58	.649		3.34	.573		3.49	.640	
	행정분야	4(4.1)	2.75	.419		3.08	.569		3.17	.694		3.08	.319		2.50	.577		3.25	.569	
	의료분야	5(5.2)	2.80	.298	2.062 *	3.27	.596	2.559 *	3.26	.596	2.694 *	3.47	.606	.917	3.07	.149	3.005 *	3.33	.333	
	교육문화 분야	23(23.7)	3.13	.447		3.70	.666		3.64	.540		3.39	.736		3.06	.802		3.41	.703	.851
	기타	15(15.5)	3.33	.519		4.09	.636		4.02	.636		3.69	.724		3.49	.486		3.73	.632	
	합계	97(100.0)	3.15	.476		3.70	.702		3.67	.608		3.52	.672		3.25	.639		3.49	.640	
현재 봉사활동 에 만족	매우 만족한다	7(7.2)	2.90	.460		4.33a	.544		4.24	.317		3.90a	.659		3.19	.766		3.29	.756	
	만족한다	77(79.4)	3.20	.469		3.69a	.642		3.67	.614		3.54a	.665		3.28	.642		3.55	.577	
	불만족이다	10(10.3)	3.00	.497	1.602	3.80a	.477	7.750 ***	3.43	.522	3.312 *	3.48	.526	3.645 *	2.97	.576	.826	3.43	.610	2.189
	매우 불만족스럽다	3(3.1)	2.89	.509		2.22b	1.171		3.22	.385		2.44b	.192		3.44	.385		2.68	1.528	
	합계	97(100.0)	3.15	.476		3.70	.702		3.67	.608		3.52	.672		3.25	.639		3.49	.640	
봉사활동 지속여부	계속할 것이다	68(70.1)	3.22	.501	2.242	3.86	.585	3.162 **	3.85	.577	5.390 ***	3.74	.592	5.480 ***	3.36	.643	3.006 **	3.58	.594	2.151
	그만 둘 것이다	29(29.9)	2.99	.372	*	3.33	.816		3.25	.460		3.02	.584		2.98	.549		3.26	.698	*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가족의 기대	매우 자랑스러워 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	10(10.3)	3.03	.652		4.07	.927		3.93	.767		3.83	.724		3.23	.316		3.37	.838	
	좋아하는 편이다	50(51.5)	3.17	.468		3.77	.622		3.75	.585		3.62	.625		3.49a	3.49	6.355 ***	3.67	.567	
	관심이 없다	33(34.0)	3.12	.463	.120	3.47	.692	2.368	3.47	.540	2.097	3.33	.661	2.636	2.92b	.624		3.29	.622	*
	기타	4(4.1)	3.25	.319		3.83	.793		3.67	.770		3.08	.833		3.00	.667		3.17	.694	
	합계	97(100.0)	3.15	.476		3.70	.702		3.67	.608		3.52	.672		3.25	.639		3.49	.640	

*** P<.001 ** P<.01 * P<.05 a>b>c3.09.468

IV. 결론

본 연구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심리적인 안녕감이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아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이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조사연구방법으로는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광명시 초등학교 고학년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조사도구로 하여 200명을 설문조사하였다. 그리고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자원봉사자의 봉사특성에 따른 집단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t-test 와 ANOVA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1. 연구결과의 요약

연구가설에 대한 조사연구결과는 <표 22>와 같이 연구가설 1은 기각되었으며, 연구가설 2, 연구가설 3과 연구가설 4는 채택되었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자원봉사 참여자의 봉사내용과 봉사인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연구 결과에서 조사대상자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자 활동에서 자원봉사활동참여 정도는 대부분이 월 1회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원봉사활동 1회 시간은 60%이상이 1-2시간 정도 활동하고 있고, 봉사활동기간은 "1년 미만"이 많았으며, 자원봉사종류는 50% 이상이 단순노력봉사로 나타났다. 자원봉사 참여에 대한 금전적 대가 보상여부는 대부분 금전적 대가보상은 바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 연구가설 결과

가설	결과	비고
가설 1.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이 자원봉사활동에 비참여하는 청소년보다 심리적 안녕감 수준이 높을 것이다.	기각	자원봉사 비 참여자가 참여자 보다 심리적 안녕감이 높게 나타났다.
가설 2.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특성은 심리적인 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채택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채택	“자원봉사 기간”, “자원봉사 종류”, “자원봉사 만족”, “자원봉사 지속여부”, “가족의 기대”에서 집단간의 차이가 유의미
가설 3.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심리적 안녕감은 집단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채택	자원봉사 참여자는 성별, 학교, 종교, 가족관계, 부모경제력, 건강상태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미. 비 참여자는 가족관계, 건강상태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
가설 4. 자원봉사활동의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심리적 안녕감의 세부적인영역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채택	자원봉사 참여자는 자율성, 긍정적 대인관계, 개인적 성장, 삶의 목적, 자아수용, 환경에 대한 통제력에 모두 영향 미치고, 자원봉사 비 참여자는 개인적성장에서 부분적으로, 삶의 목적, 자아수용, 환경에 대한 통제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둘째, 현재 봉사활동의 만족에 대한 인식은 대부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봉사활동에 대해서는 자원봉사활동을 계속하겠다는 응답한 대상자가 그만 둘 것이라고 응답한 대상자의 배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을 중단하게 될 것이라고 응답한 대상자의 봉사활동을 중단하는 이유는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자원봉사 활동을 중단하게 될 것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1/2이 넘게 나타났다.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가족의 기대는 조사 대상자의 2/3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1/3은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활동의 개선에 대한 인식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길 바라는 것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봉사활동에서 맡은 일이 보다 다양해지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원봉사활동의 결과 인식은 “삶의 보람을 느낀다”, “자기 성장의

기회가 된다”와 “본인의 성숙이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대상자보다 2배 이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가시간 활용”에서는 여가시간 활용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그렇지 않다고는 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넷째, 조사 대상자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식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대부분 “주위 사람들의 권위를 따라서”가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낮지만 그 다음은 “보람 있는 여가를 보내기 위해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좋아서”로 나타났으며, “종교적인 신념의 실천”으로 자원봉사한다는 인식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 차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원봉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은 성별, 학교, 종교, 가족관계, 부모경제력, 건강상태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는 것으로 집단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자가 남자보다 높으며, 초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높으며, 가족관계가 원만한 집단이 가족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집단보다 높으며, 건강한 집단이 건강하지 못한 집단보다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원봉사 비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은 학교, 부모의 경제력, 가족관계, 건강상태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높으며, 건강한 집단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집단보다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족관계와 부모의 경제력의 사후검증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집단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이 자원봉사활동에 비참여하는 청소년보다 심리적 안녕감 수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자원봉사 참여자의 안녕감 수준은 총평균은 5점 척

도에서 3.46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세부영역별로는 ‘긍정적 대인관계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개인적성장’, ‘삶의 목적’, ‘환경에 대한 통제력’ 수준이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영역은 ‘자율성’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자원봉사 비 참여자의 안녕감 수준은 5점 척도에서 총평균은 3.71로 높게 나타났으며, 세부영역별로는 긍정적 대인관계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개인적성장’, ‘삶의 목적’, ‘환경에 대한 통제력’ 수준이었으며, 가장 낮은 영역은 ‘자율성’으로 나타났다.

셋째,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자원봉사활동 참여자와 비 참여자에서 ‘자기인생에 대한 발전과 변화’와 ‘친구와 친밀관계’가 높게 나타났으며, 상대적 으로 가장 낮게 나타난 요인은 자원봉사활동 참여자와 비 참여자 모두 “다른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경향”과 “원하던 대로 되어 기쁘다”로 나타났다. 이는 자원봉사활동 참여자와 비 참여자 모두 심리적 안녕감의 세부적인 요인은 같거나 유사하게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심리적 안녕감의 수준은 각 요인이나 총평균에서도 자원봉사활동 비 참여자가 조금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가설 1.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이 자원봉사활동에 비참여하는 청소년보다 심리적 안녕감 수준이 높을 것이다”.를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자원봉사활동 보다 청소년 심리적 안녕감에 더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의 특성에 따라 심리적인 안녕감에 차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원봉사활동의 참여자의 봉사관련 특성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은 “자원봉사활동 참여 정도”,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 동기”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집단간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자원봉사 기간”, “자원봉사 종류”, “자원봉사 만족”, “자원봉사 지속여부”, “가족의 기대”에서는 집단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자원봉사 기간”과 “자원봉사 종류”에는 사후검증에서 집단간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원봉사 만족”은 매우 만족한 집단

이 매우 불만족하는 집단보다 심리적 안녕감이 높았으며, “가족의 기대”에서는 가족이 좋아하는 집단이 관심없는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자원봉사 지속여부”에서는 자원봉사를 계속하겠다는 집단이 봉사를 중단하겠다는 집단보다 심리적 안녕감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자원봉사 특성에 관련하여 통계학적으로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미로 나타난 ‘자원봉사 기간’, ‘현재하고 있는 자원봉사 종류’, ‘현재 봉사활동에 만족’, ‘봉사활동 지속여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가족의 기대’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의 세부영역별에서 집단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 기간’은 삶의 목적에서 유의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하고 있는 자원봉사 종류’는 자율성, 긍정적 대인관계, 개인적 성장과 자아수용에서는 유의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후검증에서는 집단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현재 봉사활동에 만족’은 긍정적 대인관계, 개인적 성장, 삶의 목적과 환경에 대한 통제력에서는 유의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에서 긍정적 대인관계와 삶의 목적에서 만족하다는 집단이 매우 불만족하다는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개인적 성장과 환경에 대한 통제력에서는 집단간이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봉사활동 지속여부’는 자율성, 긍정적 대인관계, 개인적 성장, 삶의 목적, 자아수용과 환경에 대한 통제력 모두에서 봉사활동을 계속하겠다는 집단이 봉사활동을 그만 둘 것이라는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가족의 기대’는 자아수용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좋아한다’는 집단이 ‘관심없다’는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가설 2.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특성은 심리적인 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채택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5)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심리적 안녕감의 집단간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원봉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안녕감은 성별, 학교, 종교, 가족관계, 부모경제력, 건강상태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는 것으로

집단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원봉사 참여자의 심리적 안녕감이 여자가 남자보다 높으며, 초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높으며, 가족관계가 원만한 집단이 가족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집단보다 높으며, 건강한 집단이 건강하지 못한 집단보다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원봉사 비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은 성별, 종교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집단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관계, 건강상태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원봉사 비 참여자의 심리적 안녕감은 초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높으며, 건강한 집단이 “건강한 편이다”와 “가끔 아프다”의 집단보다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가설 3.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심리적 안녕감은 집단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를 채택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6)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심리적 안녕감의 세부적인영역별 차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계학적으로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 ‘성별’, ‘학교’, ‘종교’, ‘가족관계’, ‘부모의 경제력’, ‘건강상태’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의 세부영역별 차이가 있다.

성별은 자아수용, 긍정적 대인관계와 삶의 목적에서는 여자가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는 자율성, 자아수용과 환경에 대한 통제력에서는 초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관계는 긍정적 대인관계, 개인적 성장, 삶의 목적, 자아수용, 환경에 대한 통제력에서는 원만한 집단이 원만하지 못한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상태는 긍정적 대인관계, 개인적 성장, 삶의 목적, 자아수용과 환경에 대한 통제력에서는 집단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종교에서는 삶의 목적에서 집단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의 경제력은 긍정적 대인관계, 자아수용과 경제에 대한 통제력에서는 집단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후검증에서 통계학적으로

집단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통계학적으로 자원봉사 비참여자의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미로 나타난 ‘학교’, ‘가족관계’, ‘부모의 경제력’, ‘건강상태’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의 세부영역별 차이가 있다. ‘학교’는 자율성, 삶의 목적, 자아수용과 환경에 대한 통제력에서 유의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초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관계’는 삶의 목적, 자아수용과 환경에 대한 통제력에서 유의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후검증에서 환경에 대한 통제력은 원만하다는 집단이 원만하지 않다는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삶의 목적과 자아수용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부모의 경제력’은 삶의 목적, 자아수용과 환경에 대한 통제력에서 유의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후검증에서 모두 집단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는 자율성, 개인적 성장, 삶의 목적, 자아수용, 환경에 대한 통제력에서는 유의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증에서 모두 건강할수록 세부적 영역별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활동 참여자와 비 참여자의 세부영역별 심리적 안녕감에서 자원봉사 참여자는 자율성, 긍정적 대인관계, 개인적 성장, 삶의 목적, 자아수용, 환경에 대한 통제력에 모두 영향을 미쳐 집단간의 차이를 나타내었으나, 자원봉사 비 참여자는 긍정적 대인관계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개인적성장에서도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삶의 목적, 자아수용, 환경에 대한 통제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가설 4. 자원봉사활동의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심리적 안녕감의 세부적인영역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를 채택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2. 연구의 함의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조사연구의 결과에 의한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이 봉사의 가치를 두고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에게 봉사의 가치에 의한 봉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나타낸 점이다.

둘째, 자원봉사활동의 개선에 대한 인식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길 바라는 것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봉사활동에서 맡은 일이 보다 다양해지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남으로 청소년들의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종류를 다양하게 개발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기하였다는 점이다.

셋째,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사회환경 요인은 ‘가족관계’와 ‘건강’임을 나타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조사대상자의 자원봉사 참여자의 심리적 안녕감에 집단간의 차이는 ‘가족관계’와 ‘건강’에서 나타났으며, 자원봉사활동의 비 참여자에서도 ‘건강’에서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넷째, 심리적 안녕감의 세부영역에서 자원봉사 참여자는 자율성, 긍정적 대인관계, 개인적 성장, 삶의 목적, 자아수용, 환경에 대한 통제력에 모두 영향을 미쳐 집단간의 차이를 나타내었으나, 자원봉사 비 참여자는 긍정적 대인관계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삶의 목적, 자아수용, 환경에 대한 통제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내었다는 점이다.

이런 함의에서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첫째, 본 조사연구는 광명시 초등학교 고학년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전국적인 청소년에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조사연구의 대상자 선정에서 광명시 전체를 대상으로 표본을 하지 않고 임의로 선정하였기에 객관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셋째,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력이 있다는 ‘가족관계’와 ‘건강’의 표본 수가 동일하지 않아서 객관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의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종류를 다양

하게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자원봉사정책으로는 청소년들에게 봉사의 가치를 인식하거나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이 의무나 권유에 의해서가 아니라 봉사에 대한 가치에 의해 봉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이 연구되어야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자원봉사 비 참여자는 청소년 심리적 안녕감의 세부영역 중 삶의 목적, 자아수용, 환경에 대한 통제력에 크게 영향을 미쳐 자원봉사 참여자의 심리적 안녕감의 수준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은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의 세부영역 즉 자율성, 긍정적 대인관계, 개인적 성장, 삶의 목적, 자아수용, 환경에 대한 통제력에 모두 영향을 미쳐 집단간의 차이를 나타내었기에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 수준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다양하게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교육부 고교교육정책관실(1996). 『학생봉사 활동의 이론과 실제』. 서울: 교육부.
- 구본용 외(1994). 『또래상담자 훈련프로그램개발 청소년상담연구』. 서울: 청소년대화의광장
- 김범수 외(2002). 『자원봉사의 이해』. 서울: 학지사.
- 김성태(1986). 『발달심리학』, 서울: 법문사.
- 김영호 외(2003). 『자원봉사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 김익균 외(2005). 『자원봉사론』, 서울: 교문사.
- 문화체육부 청소년정책실(2004). 『청소년백서』. 서울: 문화체육부.
- 서울특별시교육청(2010). 『중.고등학교 학생봉사 활동 지도』. 서울특별시 교육청.
- 윤 진 외(1996). 『소년심리학』.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이팔환, 백남덕(2004).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형설출판사.
- 장병립(1979). 『청년심리』, 서울: 법문사.
- 장휘숙(1993). 『청년심리학』. 서울: 도서출판 장승.
- 조휘일(2002). 『현대사회와 자원봉사』, 서울: 홍익재.
- 주성수(2005). 『자원봉사 이론.제도.정책』. 서울: 도서출판 아르케.
- 한국여성개발원(1994).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 한국여성개발원.
- 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2005). 『청소년봉사활동백서』. 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
- 홍봉선 · 남미애(2004). 『청소년복지론』. 파주: 양서원

(학술지, 학위논문)

- 강경심(2006).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실증적 연구”, 상명대학교 정치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승희(2010). “중학생의 부,모애착, 우울, 심리적 안녕감,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 『중등교육연』. 경북대학교 중등교육연구소. 58(3): 1-29.
- 고승덕(1995). “노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요인 추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고예란·김양진(1996). “청소년의 의복행동에 대한 자아중심성, 자의식, 신체 만족도의 영향연구”. 『한국의류학회지』. 한국의류학회. 20(4): 667-681.
- 고재홍·조기영(2003). “청소년의 긍정적착각과 심리적 안녕감간의 관계”. 『청소년상담연구』. 한국청소년상담원. 11(1): 166-181.
- 권지나(2003).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 욱(2011). “대학생의 자원봉사 교육경험과 자원봉사의 중요성 인식 및 참여태도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한국청소년학회. 18(3): 301-329.
- _____. 송미영(2006). “대학생의 자원봉사 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한국청소년학회. 13(6): 330-360.
- 김경순(2006).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경아·성은정(2010). “대학생의 변혁적 리더십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한국청소년학회. 17(9): 61-82.
- 김경연 (1987). “부모의 아동평가, 자아존중,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가정학과 박사학위 논문.
- 김근영(1994). “자기 검색과 수줍음이 또래인기에 미치는 영향-초기 청소년기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도희·김은영·김경희·이영선(2007). “사회복지전공학부생의 자원봉사

- 활동 과정 질적 분석”. 『청소년학연구』. 한국청소년학회. 9(2): 101-122.
- 김명수(2008). “열린세상 푸른 청소년: 청소년 자원봉사의 현재와 미래”. 한국청소년수련원. 205-207.
- 김성훈(2000). “청소년의 또래수용유형과 촉진적 의사소통능력간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희 · 김유경(2010). “청소년이 자원봉사 동기요인과 가족자원봉사 활성화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14(4): 21-38.
- 김영호(2005).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참여형태에 따른 만족도와 지속성에 관한 연구-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한국청소년학회 12(1): 17-41.
- 김인경(1993). “청소년기 자아중심성과 관련된 변인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_____ · 장근영(1992). “청소년기 자아중심성과 관련된 변인들에 대한 탐색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한국심리학회. 5(1): 143-156.
- 김정문(2008). “애착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자동적 사고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한국청소년학회. 15(6): 197-224.
- 김정용(2004). “청소년 자원봉사의 정착방안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한국청소년복지학회. 6(2). 55-67.
- 김종례(2009).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심리적 안녕감연구”. 기독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통원 · 김혜란(2001). “대학생 봉사학습에 관한 실증적 사례연구”. 『한국사회복지학』. 한국사회복지학회. (47): 148-177.
- 김희창(1998). “청소년기 여학생의 심리적 특성과 또래집단수용이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유정(2005).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이 인성에 미치는 영향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기형·강종수(2005).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만족도의 영향요인 및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연구”. 『사회복지연구』. 부산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14: 151-174.
- _____. · 박경일(1998).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생활구조 요인분석-부산광역시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제8집, 부산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315-317.
- 문성호·문호영(2009).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실태 및 효과에 관한 비교 분석”. 『청소년복지연구』. 한국청소년복지학회. 11(1): 101-120.
- _____. · 정경은·한지연(2009). “청소년기 자원봉사활동 과정 연구: 근거이론 적용”. 『청소년학연구』. 한국청소년학회. 16(3): 181-208.
- 문영희(2003).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사회복지교육의 이론적 함의에 관한연구“. 『한국지역사회발전학회지』. 한국지역사회발전학회. 28(1): 123-144
- 문은영(1994). “또래의 수용이 청소년기 초기의 고독감과 비행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정수(2011). “공감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학령 후기 아동의 성차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정희·김민(2007).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변인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미래청소년학회. 14(1): 85-103.
- 박종배(2010). “자원봉사정책의 평가와 활성화 방안”-행정안전부와 자원봉사정책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진숙·이동혁(2010). “부모의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안녕감을 매개하는 자아정체감”. 『상담학연구』. 한국상담학회. 11(4). 1599-1622.
- 신미진(2011). “무용전공 대학생의 자기 관리와 자아효능감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영주(1996). “청소년의 자의식및 역기능적 태도와 우울성향과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인숙(1988). “부모의양육태도와 자아개념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인하대

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주연·이윤아·이기학(2005). “삶의 의미와 정서조절 양식이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한국심리학회. 17(4): 1035-1057.

안이향(2009). “청소년 자원봉사센터의 이용태 및 활성화 방안연구-보령시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20. 144-169.

안진석(1982). “취학전 아동의 인기도와 사회적 행동 및 어머니의 양육태도간의 관계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명순·하정희(2006). “자아해석 방식이 우울 및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7(2): 85-105.

양은주(1993). “자의식과 부정적 생활경험이 대학생의 음주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오두경(1990). “고등학교 남학생 비행 집단간의 교유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오승환(2002). “대학신입생의 자원봉사활동 만족도와 재참여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학교사회복지』.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5): 49-69.

오정희(2006). “청소년 자원봉사의 현황과 발전방안”. 『교정복지연구』. 한국교정복지학회. 32: 235-254.

우 룡(2003). “청소년 보호 지도 연구” 『한국청소년 보호지도학회』. 한국청소년보호지도학회. 1(3): 35-62.

우정자(2011). “자원봉사 인정과 봉상이 청소년의 지역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2(3). 119-147.

_____. 김형주·김은영·이혜경(2007). “청소년 리더십 함양을 위한 자원봉사 교육 프로그램 모델 개발”.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한국청소년개발원. (1): 1-24.

- 원두리(2011). “사회적지지, 희망 및 문제해결 대처가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희망과 문제점 대처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한국심리학회. 16(2). 297-311.
- 유명의(1992). “통학복 유형에 따른 의복행동에 관한 비교연구-광주지역 남녀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대한가정학회. 30(1), 11-24.
- 유영달·이은지(2010). “지각된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 -자기분화 수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한국청소년 복지학회. 12(4): 91-115.
- 윤진·김인경(1994). “청소년기 자아중심성”,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한국심리학회. 10(3), 101-123.
- 윤명숙·최정민(2011). “초기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안녕감 간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한국청소년복지학회. 13(2). 55-78.
- 윤원숙(2003).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 또래수용과 의복태도와의 관련 연구”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성은(2009). “ 청소년자원봉사활동과 자아존중감의 관계에 관한 종단적 연구”. 『사회복지연구』. 한국사회복지연구회 40(2): 313-335.
- 이순자(2009).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지원학회지』. 한국사회복지지원학회. 4(1). 173-190.
- 이영희(2007).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발전방향과 활동영역별 프로그램”. 『청소년보호지도연구』. 한국청소년보호지도학회. 11: 55-73.
- 이종남·문영미(2009). “중고생 자원봉사활동 경험과 리더십에 관한 연구”. 『임상사회사업연구』. 한국임상사회사업학회. 16(1): 141-158.
- 이청자·백경희 외(1994).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중학교 교사용 참고자료”. 『한국여성개발원연구보고서』. 한국여성개발원, 113-149.
- 이충섭(1999). “방과후 자율체육활동이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한국체육학회. 38(3): 260-271,

- 이호석(1989). “동조유발자가 청소년의 가치관 동조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규석(2011). 청소년의 적응유연성과 안녕감 간의 관계, 『학교사회복지』.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20): 103-121.
- 정명숙(2006). “학생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한양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7(1): 129-146.
- 조경신(2008).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경진 · 김은정(2009). “입시문화와 청소년기 입시문화와 청소년기”, 『교육인류학연구』. 한국교육인류학회. 12(2): 81-103.
- 조한익 · 이미화(2010). “공감능력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친사회적 행동의 매개효과”. 『청소년학 연구』. 한국청소년학회. 17(11): 140-159.
- 주현숙(2006).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상호의존적 자아 해석이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경호(2004). “한국과 미국대학생의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한국청소년학회. 11(3): 322
- 허성호 · 정태연(2010). “자원봉사활동이 청소년기 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구, 한국청소년개발원). 21(3): 143-164.
- 허승호 · 정태연(2010). “자원봉사활동이 청소년기 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구, 한국청소년개발원). 21(3): 143-164.
- 홍성희(2010).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 영역에 따른 인성발달에 관한 연구”-안양시 중 · 고교생을 중심으로“. 성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외국문헌)

- Campbell, A.(1976). "Subjective measures of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2, 119-124.
- Conrad, D. & Hedin, D.(1989). *High School Community Service P19-20*
- Enright, R. D., Shukla, D. G. & Lapsley, D. K.(1997). "Adolescent egocentrism sociocentrism and self-consciousnes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9, 101-116.
- Fenigstein, A., Scheier, M. F. & Buss, A. H.(1975). "Public and private self-consciousness: Assessment and theor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3(4), 522-527.
- Hartup, W. W.(1983). Peer relations. In E. M. Hetherington(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New York; Wiley.
- Manser. G. & Cass. R. H.(1971). "Vouluntraism at the Crossroads". *Family Service Association of America*, New York, p. 11.
- Ryff, C. D.(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 on the meaning of pav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6), 1069-1081
- Sebald, H.(1981). "Adolescents' concept of popularity and unpopularity: Comparing 1960 with 1976". *Adolescence*, 16(61), 187-193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대학원생입니다.

본 설문지는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심리적 안녕감에 관한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한
것으로, 청소년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생각과,
심리적 안녕감에 대하여 몇 가지 사항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청소년들의 성의 있고 솔직한 답변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심리적 안녕감 실태조사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며,
청소년들께서 답변해주신 내용은 개인의 비밀이 유지되며,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청소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 년 10 월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지도교수 : 황 진 수

연구자 : 황 현 정

I.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설문지를 읽으신 후 해당되는 번호에 V표 또는 O표를 하시고
() 안에는 직접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학교 상황은 ?

① 초등학생 ② 중학생 ③ 고등학생 ④ 대학생 ⑤ 기타

3. 귀하의 종교는 ?

① 개신교 ② 천주교 ③ 불교 ④ 없다 ⑤ 기타

4. 귀하께서는 가족관계가 원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원만하다. ② 원만하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원만하지 않다.

5. 부모님의 주관적 경제 상태는?

① 매우 좋은 편이다 ② 좋은 편이다
③ 어려운 편이다 ④ 매우 어려운 편이다

6. 귀하의 건강상태는?

① 매우 건강하다 ② 건강한 편이다
③ 가끔 아프다 ④ 자주 아프다

II. 다음은 귀하께서 하고 계시는 자원봉사활동 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란에 O표를 하시거나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1. 귀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합니까?

- ① 참여 한다 ② 참여하지 않는다

☞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는 III번 항목에 직접 표기하십시오

2. 귀하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정도는 ?

- ① 월 1회 ② 월 2회 ③ 월 3회1. ④ 월 4회 이상

3. 자원봉사활동을 1회에 몇 시간 활동하십니까?

- ① 1시간 미만 ② 2시간 미만 ③ 3시간 미만 ④ 3시간 이상

4. 현재까지 봉사활동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 ① 1년 미만 ② 1년- 3년 미만 ③ 3년- 5년 미만 ④ 5년 이상

5.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 ① 종교적인 신념을 실천하기 위해서
②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얻기 위하여
③ 보람 있는 여가를 보내기 위하여
④ 지역사회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서
⑤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즐거워서
⑥ 주위사람의 권유에 따라서(학교봉사활동 포함)
⑦ 다른 사람과의 교제를 넓히기 위해서
⑧ 기타

6. 귀하가 현재 하고 계시는 자원봉사 종류는?

- ① 단순노력봉사
- ② 행정분야(사무보조, 민원안내, 행사보조 등)
- ③ 의료분야(호스피스, 환자간호, 말벗, 목욕, 의료상담 등)
- ⑤ 교육문화 분야(레크레이션, 놀이지도, 도서정리, 안내 등)
- ⑥ 종교분야
- ⑦ 기타

7.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해 금전적 보상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8. 현재 봉사활동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 ① 매우 만족 한다 ② 만족 한다
- ③ 불만족이다 ④ 매우 불만족스럽다

9. 귀하는 향후 봉사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 ① 계속할 것이다 ② 그만 둘 것이다.

9-1. 봉사활동을 그만둘 계획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활동이 힘들다 ② 시간이 없을 것 같다
- ③ 장소가 멀다 ④ 건강 문제로 ⑤ 비용이 든다

10. 귀하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가족들의 반응은 어떠하십니까?

- ① 매우 자랑스러워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
- ② 좋아하는 편이다
- ③ 관심이 없다
- ④ 그만두길 바란다
- ⑤ 기타

11. 귀하가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항 자신의 평가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되었다.					
② 폭넓은 대인관계를 맺는다.					
③ 여가시간의 활용이 된다.					
④ 본인의 성숙이나 발전에 도움					
⑤ 자기 성장의 기회가 된다.					

12. 귀하는 자원봉사활동의 개선될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금전적인 보상이 더 많아졌으면
- ② 맡은 일이 보다 다양해 졌으면
- ③ 사교적인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 ④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었으면
- ⑤ 맡은 일이 보다 쉬워졌으면
- ⑥ 없음

Ⅲ. 다음은 귀하의 평소 생활에 관한 내용입니다.<심리적 안녕감>

다음 문항 중 귀하의 생활에 동의하는 정도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문항에 O표 해 주십시오.

번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경향이 있다.					
2	나는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로 나 자신을 평가한다.					
3	나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과 다르더라도 내 의견에 자신 있다.					
4	나는 다른 사람들과 따뜻하고 신뢰할 만한 관계를 경험해 오지 못한다.					
5	친구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나에게 어렵다.					
6	나를 너그럽고, 필요하면 친구에게 기꺼이 시간도 내어 주는 사람으로 생각한다.					
7	나는 가끔 친구와 가족에게 내가 할 일은 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8	나는 오늘 하루만 중요할 뿐 미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9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 없이 방황하지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10	나는 앞으로 내 인생을 크게 발전시키거나 변화하려는 노력을 포기했다.					
11	나는 나 자신과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2	여러 측면에서 볼 때 나는 내가 사는 방법이 실망스럽다.					
13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던 대로 되어 기쁘다.					
14	나는 내 성격의 대부분이 마음에 든다.					
15	일반적으로 나는 나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느낀다.					
16	나는 끊임없이 배우고, 변화하고, 성장하는 과정이다.					
17	나는 일상생활을 잘 관리해 나가고 있다.					
18	가족이나 친구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나를 기운 빠지게 한다.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ABSTRACT

A Research on How Volunteer Service have Effects on Teenagers' Mental Stability.

Hwang, Hyun Jung

Major in Social Welfare

Dept. of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Hans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ind out teenagers' mental stability under the hypothesis of "volunteer service will increase teenagers' mental stability," and to analyze how volunteer service can have effect on our mental stability.

We have researched volunteer's volunteer service contents, perception, difference in mental stability, level of mental stability between volunteers and non volunteers, mental stability based on their service contents, difference in mental stability within a group, and particular details of mental stability.

As results, first, teenagers themselves need to know the values of volunteering; therefore, commit the service at their own will. Second, it is necessary to come up with varieties of volunteer services. Third, the social atmosphere that effects teenagers' mental stability are family relationship and its health. Fourth, people who volunteer have effect on controlling its self commitment, positive relationship status, personal

development, purpose of living a life, self-reception, and environment, which appeals to the difference between a group and an individual. Non volunteers, however, did not have much effect on positive relationship status, but did have much effect in purpose of living a life, self-reception, and environment.

In conclusion, first, we need to develop varieties of volunteer services in order to increase teenagers' volunteer service. Second, it is important to let teenagers to know the values of doing volunteer service, which can raise their commitments of doing the service. Third, to increase teenagers' mental stability level, it is necessary to have more research on volunteer services.

keyword : teenager, volunteer , Non volunteer, mental stability.

